

2003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

- 2003년 6월 17일(화) 10:30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관

민간인학살진상규명전국사회단체협의회

- 공동주최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전국 109개 인권사회단체

전국 피학살 유족회

○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연대해 주신 단체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강화유족회, 거제박물관, 거제유족회, 거창민족예술인총연합,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외국인노동자상담소, 고양지역노점상연합회, 고양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창유족회, 고흥유족회,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과산군사리면보도연맹유족회, 국제민주연대, 나눔의집, 나라사랑청년회, 나주동창교학살진상규명위, 나주문화원, 나주봉황리유족회, 나주사랑청년회, 남양주진접면피학살유족회, 다산인권센터, 대구한겨레문화정보센터, 대전형무소산내학살진상규명유족회, 문경유족회, 민간인학살문제해결을위한경남지역모임,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화해저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일산갑지구당, 민주노동총고양파지구협의회, 민주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밝은사회를위한익산시민센터, 백조일손유족회, 베트남평화의료연대, 부경유족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산청시천삼장유족회, 새사회연대, 생명나눔실천회,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여수YMCA,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수남면유족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순사건유족회, 역사문제연구소, 열린사회희망연대, 외국인민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익산역미군폭격유족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교조고양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역사교사모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교도소유족회, 정읍보도연맹유족회, 제주43범국민대책위원회, 제주43연구소, 좋은벗들, 지리산외공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진도갈매기섬유족회, 진도문화원, 진보넷, 진주사랑청년회,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부,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자치거창시민연대, 참여자치대전시민연대, 천주교광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피해극회생자대책위, 충북지역민간인학살진상규명대책위원회, 파주시민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사회선교위원회, 한국동성애자연학,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거창유족회, 한국청년연합회, 한살림고양생협, 함양유족회, 함평유족회, 항공대총학생회, 화순군양민학살진상조사위원회<이상 109개 단체, 가나다 순>

2003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CPel.24

2003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

■ 2003년 6월 17일(화) 10:30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관

민간인학살진상규명전국사회단체협의회

■ 공동주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전국 109개 인권사회단체

[한 시]

역사(歷史)의 현장(現場)

정 승 하(시인, 거창 유족)

지난해 2002년 안으로 가난한
민생살이 접어놓고
월드컵 4강이란 붉은 물결이
용솟음치던 숨결이 남아 있었던가
돈 자랑 힘 자랑이듯이
노사모 돼지 통이 황금 물결 이루더니
어인 일로 어인 일로
노나라 시대가 탄생한 여울목에
화려한 현대사 서막(序幕)이 열렸다

자유를 빼앗기고
평화가 무너지던
그 때 그 날을 잊었나요?
사상이 무엇인지
이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넘은 가고 돌아오지 못한
파랑새 혼령들이여
50년 긴긴 침묵을 깨고 일어나
햇불을 밝히소서,

서울역 광장엔
햇살이 눈물이듯 쏟아지고
거창 시민연대 회원들은
靑청한 열기 다해 외치고 있었다
해골 그들도 함께 외치고 있었다
만고의 원한을 심은 참상이어라
역사의 현장이어라
누가 그런 짓을 했는가?
서울에서 거창에서
꽃상여 행렬이 외치고 있었다

계곡마다 가득가득 쌓인
해골 사진을 전시해 놓고
목 놓아 외치고 있었다
뜻뜻한 열정을 토하고 있었다

누가 쓴 총살인가 누가 쓴 학살인가?
긴 세월 흘러간 슬픈 역사의 참상을
느티나무 가지에 걸어 놓고
외치는 바람소리 옷깃을 적신다
산에는 진달래 들에는 들국화
피고지는 계곡에서 잠든 님들이여

척박한 귀퉁이도 마다하지 않고
민생고에 찌든 목청을 돋우고
풀지 못한 원한을
간대 족족 외치는 슬픈 메아리가 젖어오는
길목에서 탄생한 노나라 시대가
풀어야 할 실타래 남기고
50년 묻었던 눈물을 쏟은 희비(喜悲)가
엇갈린 2002년 그 해는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가칭 '금강문인회 학살사건'

증언자 : 류 황 렬
(부여 금강문인회 학살 사건 유족)

저의 부친 류인찬(이하 아버지라 칭함)님은 1913년 8월생으로 20세 때인 1933년 소화8년 형사사건부의 기록에 의하면 금강문인회 사건 일명, 친일파에 의해 명명된 충청남도 공산주의협회사건으로 취조를 받았으며, 이후 친일파의 앞잡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산주의 노선을 따른다는 명목 하에 취조를 10여 차례 당하셨습니다. 극기야 1950년 6월 27일에 부여경찰서 형사들에 체포되어, 사흘 후인 1950년 6월 29일(음력 5월 29일) 37세 한창의 나이에 백마강에서 무참히 학살당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문중의 도움으로 백마강 구드레 근처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집안은 유학자의 집안으로 삼종증조부님댁(경운)에서 나라 잃은 설움 및 독립투쟁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전해들은 바 일찍 부터 우리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깊었던 집안으로 생각합니다.

삼종조부 류기섭님은¹⁾ 일찍이 개화하셔서 상투를 자르시고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익히시어 우리 나라의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에 투신하셨습니다. 1930년경 류기섭님은 농촌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대왕 의숙이란 학당을 설립하시어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한 이들을 가르치시고 민족의식 및 독립투쟁 의식을 고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기에서 학문을 배우는 등 민족의식 및 항일 독립투쟁의식이 마음 속 깊이 새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일제시대 독립투사로 활동하시다 친일파에 의해 공주형무소에 잡혀가 1934년에 옥사하심. 독립투쟁 행적을 인정받아 애국지사로 지정하였음.

또한, 류기섭님은 근처 여러 고을의 뜻있는 분들과 문인회를 만들고 문인회 총무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가 독립운동단체인 화성당을 조직하였습니다. 화성당 조직 결성의 죄로 1931년경 친일파 앞잡이에 의해 체포되어 강일 등과 같이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루셨고, 이 조직은 와해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 류기섭님은 금강문인회를 재조직 및 활동하시다 다시 체포되어 3년의 형을 받고 형기를 마치지 못한 채 공주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 시기 공주형무소에 자주 면회를 가셨으며, 여기서 류기섭님의 사상 및 이념을 전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 후(한국전쟁 발발 전), 이러한 독립투쟁의 집안 배경을 바탕으로 어렵게 사는 농민 자제들을 계몽하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모두가 잘 살자는 사회를²⁾ 만들어 보고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일제시대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친일파들은 일부 지식층 및 뜻 있는 인사들에게 자기들의 행각이 발각될까 우려하여 류씨 문중을 포함하는 금강문인회를 공산당으로 매도하여 상기 첫 부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백마강으로 끌고 가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인(류황렬)의 나이 15세로 백마강 구드레 나루터에서 2명이 한 조로 새끼줄에 묶여 억울하게 총살당하신 아버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경우로 추정되는 30여 구의 시신들이 백마강에 떠 흐려가고 있었던 바, 그 한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을 맞은 기쁨도 못 느끼고 우리동족들한테 무참히 죽어간 영혼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일제 때 일본 놈의 앞잡이들이 해방 후 또다시 정권을 잡으며 애국지사의 집안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살육하고 자기들의 친일 행각의 죄를 감추기 위해 더욱 더 많은 뜻 있는 지식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2) 이것이 친일파에 의해 공산주의로 와전되었음.

과거 민족의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한 나라, 이러한 나라에 민족의식과 자주의식을 심기 위해서도 이제는 현정부가 과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학살당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뉘을 위로하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그 지긋지긋한 과거 50여년간 공산당 빨갱이로 몰려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시켜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글 여기서 줄이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에 아낌없는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 참고자료 : ‘금강문인회 학살 사건’ 류완열 유족 증언

저의 부친 류인성 님은 1916년생으로 19세 때인 1933년 소화 8년 형사사건부의 기록에 의하면 금강문인회사건 일명 충청남도 공산주의협의회사건으로 취조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1950년6월28일 (음력 5월 28일)경찰에 잡혀가신 날을 제사일로 하니 34세의 한창의 나이에 무참히 사망하셨음을 알수 있으나 시체도 찾지 못하였으니 생사가 불명인 셈이지요. 같이 붙잡혀 가신 종숙 류인창 숙부님은 다행히 형님들이 시체를 찾아서 같은 날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의 집안은 일찍이 유학자의 집안으로 고조부 자겸와 님은 자겸와 집에서 여러 차례 나라 잃은 한과 자신의 처지가 나라의 독립운동에 뛰어들지 못할을 아쉬워하신 뜻이 여러 군데 나오며, 종조부님의 경운집 에서도 나라잃은 설움에 대한 논의 있는 걸로 보아 우리집안은 일찍부터 나라 잃은 우리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깊었던 집안임에 틀림없습니다.

조부님 형제 중 둘째이신 류기섭 님은 일찍이 개화하셔서 상투를 자르시고 신학문을 받아들여서 신학문과 접하시며 우리나라의 조국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에 투신하셔서 일찌기 대왕의숙이란 학교를 설립하셔서 야학을 여시어 가진 것 없는 배우지 못한 이들을 가르치시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셨습니다.

한편 야학을 하시는 근방 여러 고을의 뜻 있는 분들과 문인회를 만들고 문인회 총무를 맡는 등 활동을 활발히 하시다가 독립운동단체인 화성당을 조직하고 서진, 강일 등과 같이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시고 또다시 금강문인회 일명 충남공산주의 협의회를 조직해 활동하시다 3년의 형을 받고 형기를 마치지 못한 채 공주 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이러한 집안 배경과 야학으로 신학문과 영어, 러시아어 등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학문에 정진 하셨으며 그 영향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어렵게 사는 농민 자제들과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여운형, 박헌영, 허헌 님들과 같은 길을 걸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6·25가 일어나자 남로당원이라는 이유로 끌려가 무참히 변명 한 번 못하고 청춘 34세의 일기로 죽어 갔으며 나라의 독립을 맞은 후 우리 동족들한테 무참히 죽어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일제 때 일본놈 앞잡이들이 또다시 정권을 잡으며 애국지사의 집안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살육하고 자기들의 친일 행각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더욱 맹렬히 학살을 자행하고 자기들만이 이 나라의 주인 행사를 하고 연좌제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꺾는 등 이 사회에서 저질러지든 부정 부패의 원흉 노릇을 하고도 뉘우침없이 살아온 일본놈의 앞잡이들이 지금껏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썩어 빠진 사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한 나라. 이러한 나라의 민족의식과 자주 의식을 심기 위해서도 이제는 분명히 일어서서 과거 50여년간 공산당 빨갱이로 몰려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온 억울한 세월을 어디다 하소연 하리요.

이제라도 분명히 일어서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더 보태지도 말고 삭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리라 믿으며 두서 없는 글 여기서 줄이고 이러한 일을 하시는 범국민위원회에 감사와 노고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증언 - 청도]

청도 보도연맹 학살

증언자 : 박 희 춘
(청도유족회 회장)

증언자는 당시 17세(35년생, 중학교 3년)였고, 피해자는 아버지(당시 42세)로 당시 동리장이었고 소위 부역이나 이런 행위는 전혀 없었다. 우리 동네는 커서 마을에 들 한가운데 큰 숲이 있었다. 옛날 당신이라고 5,6백년 된, 당제를 지내고 하는 고목도 있고 마을이 유서가 있는 마을이었고 오래된 고목들이 있었다. 이것을 6.25를 이유로 징발을 한다.

지서에서 나와 나무를 베길래 아버지가 이장이었기 때문에 “왜 베느냐?”했더니, “개머리판을 만든다”고 하면서 나무를 징발했었다. 그런데 당시 우리 마을에 아버지의 연배이면서 경찰서장으로 있던 박주현에게 “징발을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니 박주현이 “나무를 왜 징발하나. 총도 못 만드는데 개머리판은 무슨?” 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서 주임을 만나고 순경들에게 왜 이런 사실이 없는데 징발을 하냐고 “도경찰국에 진정을 하겠다”고 말한 게 바로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는 순경만 되도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었다. 죽여놓고도 부역자, 빨치산, 공산당이라고 해 버리면 뒤에 아무 뒷탈이 없던 시절이다. 그게 소위 우리 해방이후 6.25 진행 과정에서의 역사였다.

아버지는 집에 있다가 다른 보도연맹원들이 연금상태에 있다가 연행되어 가는 날, 50년 7월 17일(음력 6.초1일)경으로 기억되는데, 연

행되어 가서 실종됐다. 연금상태에만 있었으면 피하게 했을텐데 집에 있다가 연행됐다. 연행된 상태에서 2,3일간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연행사실 알고 연락이 왔다. 유치장이 아니고 어느 창고같은데- 큰 주택, 가옥같은데- 3,4백명 연금시켜 놓고 보초도 없었고 사람들도 왔다갔다 했다. 아버지는 그 다음 다음날 없어졌고 시신도 못 찾았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후에 본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다가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면 “본인의 아버지는 6.25당시 보도연맹에 가입, 행불자임”이라고 나와서 보도연맹인 줄 알게됐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군에 입대했다. 당시는 학도호국단 체제였고 학교는 이미 군대가 다 점령한 상태였다. 당시 군대가는 것은 군인들이 작대기로 죽 대보고 작대기보다 큰 사람, 작은 사람으로 분류해서 지원입대시켰고 학도병으로 교복입은 채로 전쟁을 치렀다. 신병 교육같은 거 받은 것이 아니고 훈련 안시키고 일선에 내보냈었다. 학도병이 아니라도 동행, 연행된 사람, 경찰, 방위군, 공출병 등 많았다. 그 당시 키 크고 멀쩡하면 군에 잡아갔다. 순사는 할당된 게 있어서 연행해서 담당 관리들에게 인계하는 게 소위 공출제이고 나도 공출병으로 갔다.

나는 군대에도 있었고 해서 인민군 미침 지역에 많이 가봐서 학살 현장이나 시체를 많이 봤다. 시신들이 100명, 50명, 70명씩 무더기로 있는데 “가라’고 하고 뒤에서 기관총으로 발사하여 시체가 무더기로 산에 질펀하게 깔려있고, 비가 올 때는 해골이 떠내려와서 저수지에 해골이 모였다.

청도 지역에는 보도연맹원이 1013명인데 이 중 약 400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는 도망갔고, 오히려 죄를 안 지었으니 집에서 농사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었고, 조금이라도 좌경했거나 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다 피했을 때이다. 보도연맹에는 실제로 좌경사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안 죽었고 봉화불을 받거나 뼈라를 받거나 순사들하고 감정의 문제가 있거나, 순사들한테 돈 안 주

고 부역을 제대로 안 하고 약간 미운놈 있으면 강제로 죽였다.

나는 82년부터 혼자 위령제를 지냈고 '보도연맹'이라는 책을 군벌시대에 최초로 냈다. 82년부터 출간하기로 했는데 정보계통에 문제가 있어 중단됐고 88년 전두환 시절에 발간하려다가 정보부에 연행되기도 했었다. 그동안 청와대도 가고, 국방부, 법무부, 국회의원에 탄원을 술하게 내고 대구매일에 개별인터뷰도 하고 청도신문에도 기사가 나고 했다.

나는 청도 지역 역사 재조명의 기회, 국민단합을 위해 군읍에서 청도 사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청도 만으로도 진상규명하는 것이 가치 있겠다고 제안했었는데 군수가 방해해서 무산된 경험도 있다.

어쨌거나 당시 실정법으로 볼 때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졌는데, 긴급명령에는 적을 이롭게 했거나, 부역을 했거나, 적을 위해 일을 했거나, 아군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나 수많은 보도연맹원들은 위 사항에 해당 안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당시 실정법에서도 특별히 죽을 수 있는 범죄를 행한 사실이 없는 데 억지로 만들어 죽였다.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하면서 제일 내세웠던 주장이 바로 뭐냐면 당시 죽이거나 취조했거나 하면, 피해자 조서가 있을 것인데 그 서류를 내라하는 것이다. 죄를 지었더라도, 죽었으니까. 억지로 만들었던 죄로 피해자 조서를 만들었고 강제로 서명을 하게 했더라도 죽었으니까 증거를 내라는 것이다.

전쟁을 핑계로, 주도권 연장의 수단 삼아서 국민 저항을 막아보자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문제다. 예전에 노무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만났을 때 노무현은 "기득 세력이, 군벌정치의 정치인들이 한나라 당에 그대로 있다. 이 사람들이 소위 의식변화가 있기 전에는 이 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습적 기득권이라는 게 할배 아버지

가 장관, 국회의원이었고 계속 내려오는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다. 이 사람들 가지고는 문제가 안 있겠나" 했다. 대통령 되기 전의 말이나, 지금도 머리에 뿌리깊게 기억하는 말은 "세대가 바뀌기 전에는 해결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됐지마는...

○ 참고자료 : 경산향토신문 기사(2000/08/26)

청도에서도 대규모 양민학살

유족 박희춘씨, 「곰티재에 보도연맹원 372명」

90년 「실록보도연맹」 출간하기도

인근 청도지역에서도 한국전쟁 시기 대규모 양민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청도지역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의 유족인 박희춘(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66세)씨는 지난 2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청도지역의 국민보도원 372명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음력 6월 2일 곰티재에서 집단학살되었으며 보름 후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당시 「이러한 사정을 담은 책 『실록 보도연맹』을 지난 90년12월 도서출판 삼화(三和)에서 출판했으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안재(安齋·필명)의 한의 노래」라는 부재를 단 「실록 보도연맹」에서 △청도지역 보도연맹원 학살사건과 △해방공간의 좌우대립 △보도연맹원의 자식이라는 사실 때문에 요시찰인물이 되어 30여 년 간 겪은 고초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원으로 학살된 사실이 경찰 신원조회 과정에서 나타나고 「6.25당시 보도연맹에 가입, 행불(행방불명)된 자는 월북자로 간주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씨는 신원조사결과서 말미에 「자신 이외의 (사건,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고 명시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요시찰 A·B·C·D급으로 분류, 경호시찰에서 해제될 때까지, 정보형사의 끊임없는 미행을 당하고 직장에서는 사직을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실록 보도연맹」에서는 당시 보도연맹이 「좌경확산을 방지하고 용공자를 국가가 보호 계도하여 선량한 국민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보도연맹원을) 해방 후 극도의 정치 혼란 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남로당에 가입한 사람(활동여부 불구)과 전적으로 경찰의 불성실하고 무분별한 독단(감정적 처분까지)에 의하여 반국가적 이적행위 우범예상자로 규정 분류하여 이들을 권유 강압하여 가입시켰다」고 말했다.

실제 보도연맹 청도군 이서면 지부의 경우 전현직 면장, 조합장, 교원, 면서기, 전경찰 등 지역사회 중견인사들이 총망라되어 있었고 70~100여명에 이르는 평연맹원 중에도 공산주의자로 복역한 사람은 한둘뿐이고 나머지는 빨치산의 총칼에 강제 당한 상태에서 △봉화불을 지르는데 따라간 죄 △곡식이나 의류를 탈취 당한 죄 △빨치산의 뼈라를 주워 본 죄 △짐을 잘못 운반한 죄 △한 두시간 사랑방과 마루를 빨치산의 선동장소로 징발 당한 죄 △공산주의자의 아들·형제를 둔 죄 △공산주의자를 친구로 둔 죄 등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청도지역 보도연맹원들은 각 지서로 끌려와 한달여 동안 교실 등에서 연금상태로 집단생활을 하다가 현재의 청도 경찰서 남쪽 50여 미터에 있던 국민회당에 집결해 있다가 곰티재에서 집단학살 당한 것이다. 필자인 박씨의 아버지는 당시 지역 사회의 유지로 집앞 모자리에서 모를 내다 지서에서 나온 순경을 따라 나선 후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필자는 「아버지가 감금되어 있는 국민회당으로 찾아가 아버지를 면회했으나 3일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 후 박씨는 「곰티재 오른쪽 골짜기에서 한밤중에 총소리가 나 다음날 올라가 보니 구덩이에 수 십 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고 더러는 신음소리도 났다」는 풍문을 듣고 보름 후 현장을 방문, 「골짜기마다 수 십 명씩 구덩이에 반쯤 묻힌 시체들을 확인했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 2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80년대 말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모두가 허사였다」며 「이제는 보도연맹 학살사건이 바르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향토신문 최승호 기자)

[증언 - 거창]

거창 보도연맹 학살

증언자 : 엄 창 주
(한국전쟁전후 거창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부회장)

우리나라 민간인학살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왔던 거창 신원 사건 말고도 거창에는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수많은 민간인이 경찰 및 우익단체 등에 의해 짐승보다 못한 죽음을 당하였다. 그 중 하나가 국민보도연맹 관련 학살이다. 나도 그 유족의 한 사람이며 보도연맹 관련으로 학살당한 사람들이 겪은 수모와 고통 그리고 학살 당시 상황 그 후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냉대와 질시의 족쇄에 묶인 사실들에 대해 물어볼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을 증언하겠다.

해방 직후 국민들은 우익이 뭔지 좌익이 뭔지 잘 모르는 시대였고 우익 단체의 주최는 대동단이었으며 대동청년단이 주축이 되어 자기들의 개인 감정이나 아니면 자기들에게 비협조한다고 생각한 사람들, 글 꽤나 말 꽤나 하고 지서와 면사무소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누명을 씌워 좌익 아닌 좌익으로 몰아 부쳤다.

1948년 늦가을에 우익단체들이 000를 죽이겠다는 뼈라를 자기들이 만들어 자기들이 각 처에 붙여놓고 보도연맹 관련으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 신원면에 희생자 전원을 지서에 소환하여 야구방망이 크기의 몽둥이로 매타작을 하여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그 상태로 지서 마당에서 밤을 새게 하여 서리가 하얗게 온몸에 내렸고 등뼈가 부러진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는 거창 신원 지서를 뒤흔들었고,

가족들이 죽을 가져가 먹이려고 해도 가족 하나 하나가 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그렇게 개취급을 당하고 다음날 오후에 가족들이 업고 집으로 옮겼으며 며칠 후 조사 명목으로 다시 불러서 가족들이 등에 업고 지서문을 드나 들어야 하는 처참하고 피눈물 나는 광경이었으며,

1949년 초봄에도 그 뼈라 사건으로 앞서와 똑같은 매타작을 당하고 희생자들은 언제 죽을 지 언제 또 부를 지 불안하여 밤잠을 못 자고 고통을 겪어 왔고 1949년 초가을에 희생자들에게 영문도 모르는 전향서를 내라고 했다.

좌익 활동을 해서 빨치산 노릇을 했나, 북한과 내통을 했나, 뼈라 사건에 관련이 있었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을 자수해서 전향서를 내라고 할 때 시키는 대로 해야 살아 남을 지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던 중 결국은 경찰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전향서를 제출하고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사람도 있고 도 희생자 중에는 가입되지 않을 사람도 많았다.

그것은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한 일이다. 그 당시 좌익사상에 물들었던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 위협을 느끼고 죽음을 피해 서울 부산 등지로 피신하였다가 80-90살 이상의 나이로 자기 명대로 살다가 가셨고, 아무 한 일없고 죄가 없으니 마음놓고 집에 있던 사람들은 1950년 7월 19일 오전 10시경 갑자기 지서에 연행되어 트럭에 태워 거창 경찰서로 인계,

지금의 국민은행 거창 지점 자리인 당시 상업은행 창고에 감금시켰다가 7월 21일 1차로 20명을 4명씩 옆으로 세워 끈으로 손을 묶고 천으로 눈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게 한 채 트럭에 태워 무장 경찰에 의해 합천군 마령재에서 무참히 학살하였고, 7월 22일에 2차로 35명을 앞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트럭에 태워 합천군 권빈재에서 처참하게 학살하였다.

그 외에도 경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이 수없이 많다. 그 후 학살의 주범인 우익단체 우두머리가 경찰과 같이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해서 가고 거창에는 북한군이 들어오자 좌익사상에 몰들어 외지로

피신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친구, 동료들이 그렇게 무참히 학살당한 것을 알고 우익단체에서 일하던 사람들 미처 피신하지 못한 사람을 잡아 앞에서 말한 뼈라 사건을 문초한 결과 뼈라를 쓴 장소, 쓴 사람, 갖다 붙인 사람,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소상하게 밝혀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누명을 쓰고 좌익 아닌 좌익으로 몰려 강제로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사람, 아예 가입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로 억울하게 숨겨진 사실들에 대해 역사의 진실을 밝혀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범치국가에서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그 후 유족들은 수소문 끝에 서로 연락하고 학살 장소도 알려주고 해서 오랜 시일에 거쳐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 여름철이라 시신이 부패되어 분간을 못해 허리띠, 의복, 신발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찾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너무 시일이 지나 부패되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유족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유족들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1951년 음력 정월 초 닷새 날 거창 신원 학살사건이 발생하여 온 마을 집들은 불에 타 잿더미로 변했고 피난을 가야 하는데 보도연맹 가족이란 딱지 때문에 피난갈 곳이 없어 합천군 고모님 댁으로 80살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족들이 찾아 갔으나,

자기 아버지가 오셨는데도 남의 눈들 때문에 마당에도 못 들어서게 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 나와 마을 빈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 마을 이장이 찾아와서 피난증을 가지고 오면 마을에 있게 해준다기에,

어머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콩 1말을 머리에 이고 우익단체 우두머리 000면장을 찾아가 사정을 해서 피난증을 얻어 와서 피난 생활을 하였고 다른 유족들도 산청, 함양, 합천 등지로 피난을 가 냉대와 질시의 눈총을 받으면서 힘드는 피난 생활을 하였다.

이런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묻어버린다면 언제 할 것인가. 한 평생을 두렵고 가슴 조리며 한숨을 삭여야 했던 이 저주의 역사를 더 이상 아들 손자에게까지 물려 줄 수 없으니 과거 국가권력이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는 더 이상 희생자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망동을 하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이제는 음지에서 온 불행한 역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진실을 양지에 들어낼 때가 아닌가. 어찌 이 잘못된 역사의 무거운 짐을 후손들에게 짊어지고 가라 하겠는가. 6월 임시국회는 16대 국회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진정 국민의 대표로 설 것인지,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바라면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 경남도민일보 기사 (2002/09/10)

<경남도민일보> 또다른 거창유족회 거창에 또다른 민간인학살 유족회 창립

“저주의 역사, 후손 물릴 수 없다” ...피해자 명예회복 나서

“죽지 못해 살아남은 유족들은 한 평생을 두렵고 가슴 조이며 한 숨으로 삭여야 했던 이 저주의 역사를 더 이상 아들 손자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혼제라도 지내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을 잠재워야 할 것 아닙니까.”

한국전쟁 전·후 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위령사업이 진행중인 거창사건 외에 또 다른 양민학살사건인 거창민간인학살사건 유족들이 지난 6일 거창종합사회에서 거창군수와 각급 기관단체장·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전후 거창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회’ 창립식을 갖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나섰다.

맹판호 (69)유족회 회장은 “지나온 생을 돌이켜볼 때 후회하고 아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슴에 멍울로 남아 평생을 두고 삭여도 없어지지 않는 한이 있어 이 한을 풀기 위해 유족들이 모이게 됐다” 고 밝혔다.

특히 이날 유족들은 “죽은 형제들의 편안한 휴식을 기원하고 억울함을 달래는 진혼은커녕 오히려 죽음의 원인을 숨겨야 하는 기막힌 세월을 살아야 했다” 며 50여년 동안 맺힌 한을 지역국회의원·군수·군의회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제정할 것” 을 촉구한 뒤 “이강두 의원은 민간인 학살특별법 제정에 서명하고 이에 앞장서라”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거창군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며, 거창군수는 진상 조사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억울한 죽음의 진혼제를 주최할 것” 을 요청했다. 유족들은 이날 이후로 이 같은 결의사항이 지켜질 때까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거창민간인학살사건은 지난 49년 음력 7월7일에서 28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 남상면 춘전리에서 김정근 등 25명의 청년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젊다는 이유로 안의면 지서로 끌려가 ‘통비분자’ 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한 뒤 안의초등학교 뒷산 대밭골과 안의 밤숲 근처 등지에서 학살당했다.

또 인근 신원면·거창읍·마리면·위천면에서도 이듬해 음력 6 월6일에서 13일까지 7일간 1차 약 25명, 2차 약 30명의 민간인이 합천군 묘산면 권빈재·마령재에서 국민보도연맹원으로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 거창/이상재 기자 / sjlee@dominilbo.com

[증언 - 파주]

파주 교하면 산남리 학살

증언자 : 김 춘 기
(파주 교하면 산남리 학살 유족)

(증언자는 당시 32세, 현재 85세. 9.28 수복 후 부역 혐의자로 마을 치안대에 학살당한 피학살자 김인환의 처. 슬하에 3남매를 두었으나 두 남매를 잃고 현재 혼자 살고 있음. 딸과 사위가 가끔 왔다갔다 함)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 치하가 된 뒤 남편이 부역을 조금 했어.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말하는 투로 봐서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조금 한 거였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될 때에는 마을 뒷산인 심학산에 올라가 땅을 보며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였으니까.

그런데 9월 28일쯤 수복이 되고 나니 세상이 다시 바뀌었어. 그전에 몰랐는데, 수복 후에 듣자니까 인민군 치하에서 수복 직전에 태극단이 많이 죽었다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도 너댓 명 돼. 태극단으로 죽은 집안은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었으니 힘깨나 쓰는 집안이었지. 그 당시 웬만한 집안에서는 중학교 보내는 건 꿈도 못 꿀 시대였으니까. (* 당시 인민군 치하의 우익 비밀 결사대이던 태극단에는 중학생 - 지금의 중고등학생 - 이 가장 많았고, 특히 산남리 태극단원은 대부분 중학생이었다.)

수복 후에 태극단원이 있던 집안에서는 눈이 뒤집혔어.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지. 죽은 태극단원들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마을 치안대가 조직되어 부역 혐의자들의 명단을 짰어. 당시 치안대장은 이창덕이었고, 신주철이, 김○○이가 핵심이었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밤중에

하나 둘 불러나가 사라지기 시작했어. 저쪽 심학산 계곡이나 여기 한강변 황마람 갯벌로 끌고 가 썩썩해버린 거지. 그때 법이고 뭐고 없었어. 법대로 하면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처치해버린 거지.

수복 후 한 20일쯤 됐나? 밤중에 모자 쓴 청년 몇이서 남편을 불러내는 거야. 그러더니 밤이 새도록 안 들어와. 아무래도 일이 잘못됐나 보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며칠 뒤 누가 와서 갯벌에 누가 죽어 있는데, 한번 나와보라는 거야. 옷 입은 차림새로 보니 우리 남편 같다는 거야. 옆에 당숙들이 살고 있었는데, 당숙들이 갯벌에 나가서 확인하고 남편의 시체를 떼메고 돌아왔어.

시아버지가 그 날로 치안대장 이창덕이를 찾아갔어. 그랬더니 치안대장이 순경하고 아침을 먹고 있다가 깜짝 놀라더라. 순경도 깜짝 놀라고. 죽은 남편이 순경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거든. 어쨌든 시아버지는 치안대장한테 우리가 자식 시체를 찾았는데, 까마귀밥을 만들든 어디다 파묻든 자네 처분대로 하겠노라고 말했대. 그랬더니 잘 물어주라고 하더라네. 그래서 집 옆에다 무덤을 파고 물어주었지.

당시 산남리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아마 100명도 넘을 거야. 대부분 인민군 치하에서 마지 못해 부역을 조금 한 사람들이었지. 개인 감정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체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나중에 듣자니까 여기 사람들은 거그메(당시 고양군 송포면 구산1리) 치안대가 와서 죽였고, 거그메 사람들은 여기 산남리 치안대가 와서 죽였다더구만.

그 뒤로 남편도 없이 딸시를 받으며 3남매 키우며 살아온 일은 말로 다할 수 없어. 여자 몸으로 굶은 농삿일 다해가며 참 힘들게 살아왔지. 그마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는 젊어서 죽어버리고, 하나 남은 딸은 출가해서 한동안 혼자 살았어. 요새는 사위가 직장 땀에 산남리로 와서 나하고 함께 살고 있지만. 그나마 참 고마운 일이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일은 정말 끔찍해서 차마 생각하기도 싫는데, 도대체 그게 사람들이 할 짓이야? 전쟁 나서 사람들이 무지 죽어 가

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한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여. 아마 정식 재판을 받았으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야. 그걸 생각하면 인간이 개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하는 짓 보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아. 지금 와서 그 원을 어떻게 풀어 줘. 다 소용없는 짓이지. 어쨌든 다시는 전쟁 같은 것 일어나지 말고,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야.

○ 참고자료 : 파주 교하면 산남리 학살 개요

인민군 치하 3개월 동안 산남리에서 인공에 협력한 사람은 지식인 계층이나 하층민이었다. 개중에는 적극 부역한 사람들도 있고 마지못해 참여한 사람들도 많았다.

한편, 1950년 7월 20일 파주 산남리에도 고양파주지역의 우익 비밀결사인 태극단의 지단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던 중학생들이었다. 9.28 수복 직전 태극단의 정체가 인민군 치하 내무서에 발각되면서 산남리에서 13명의 태극단원이 희생당한다.

수복 후 태극단원의 집안을 중심으로 산남리 치안대가 만들어지면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9.28 수복 직후 약 1개월 동안 산남리에서 부역 혐의로 죽어간 사람들은 72명(또는 100여 명)이리는데, 마을 치안대는 부역 혐의가 있는 집안 사람들을 학대하다가 이육고 명단을 작성해서 학살을 시작한다.

그런 면에서 산남리 학살은 보복 학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재보복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일가족 몰살 사례도 발견된다. 예컨대 신가네 일가는 모두 17명이 죽었고, 그밖에도 여러 집안이 일가 몰살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이웃 마을인 거그메(당시 고양군 송포면 구산1리) 치안대와 산남리 치안대가 서로 상대 지역을 오가며 교차 학살을 했는데, 구산1리에서는 일가족 몰살 8집안을 포함하여 100여 명이 치안대에 의해 부역 혐의로 죽어갔다. 구산1리의 경우에는 인민군 치하에서 우익인사 2명이 죽은 대가로 100여 명이 죽는 피바람이 불었다. 일가 몰살이 많은 이 지역 학살의 경우, 유족이 매우 드물어 정확한 피해 상을 파악하기도 힘들다.

[증언 - 해남]

해남 마산면 학살

증언자 : 이 창 준
(해남 마산면 학살 유족)

○ 참고자료 : 시민의소리 기사(2003/06/07)

“한국전 초기 해남서 집단 학살”
광주인권운동센터 진상조사단 현장조사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4개월 남짓 되던 1950년 11월초(음력 10월1일~3일) 해남군 계곡면, 마산면, 산이면 등 3개 면에서 경찰과 청년단에 의해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됐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8일 해남군 마산면과 산이면 일대에서 피해 유족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한편 학살 장소로 알려진 마산면 상등리 소재 붉은데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증언에 나선 이창배(63) 창준씨(56) 형제는 “1950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음력) 경찰과 해남청년단이 계곡면과 마산면 산이면 일대를 돌면서 3일 동안 무고한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했다” 고 주장했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경찰과 청년단으로 구성된 토벌대(대장 최기명)는 계곡면(1일) 10여명을 시작으로 마산면(2일) 42명, 산이면(3일) 48명 등 10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산면의 경우 붉은데기 학살에 앞서 두드럭재에서도 18~20여명이 학살됐다는 증언이 나와 조사결과에 따라 학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 이형태씨(당시 15세)는 “당시 형님이었던 형두씨(당시 30세·조국보위 위원장)가 마산지서에 수감돼 있었는데 식사를 가져갈 때마다 사람 수가 줄었다” 며

“밤마다 즉결처분이 이루어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고 술회했다. 형태씨에 따르면 해남청년단은 ‘학살잔치’ 를 벌이기 위해 해남 일원의 각 지서를 돌아다니며 인원을 차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50년 11월 계곡. 마산. 산이면서 민간인 100여명 처형
마산면 경우 두 손 뒤로 묶은 채 눕혀 놓고 대검 난자
산이면 마을 불지른다 불려 모은 뒤 11명 현장서 사살
기존 조사와 다른 사례 발굴...추가결과 따라 파장 일듯

창배·창준씨의 부친이었던 이병희씨(당시 34세)와 고숙 윤○○씨도 마산면 붉은데기에서 함께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준씨에 따르면 부친 병희씨는 해남보도연맹사건에 연루돼 진도군 의신면 소재 갈매기 섬에서 학살당한 동생 병철씨의 사체를 수습해와 당시 경찰이었던 남학준씨에게 항의했다가 수복 후 과실죄에 걸려 학살당했다고 한다.

당시 분주소장을 역임했던 이광춘(이백준 부친)씨의 부인도 이날 죽임을 당했다. 희생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은 일주일 전 남편이 학살당한 데 이어 죄 없는 마을사람들이 또 죽게되자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마라” 고 항의하다 결국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 당시 대한청년단 간부였던 이병덕씨(75세)는 “그 당시 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즉결처분으로 학살이 자행됐다” 며 “당시 일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고 말했다.

이씨는 또 “청년단들이 희생자들의 손을 뒤로 묶어 눕혀놓은 상태에서 대검으로 온몸을 난자했다” 며 “학살 직후 붉은데기에는 핏물이 강처럼 흘렀다” 고 처참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창배씨도 “부친 이장 때 보니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었다” 며 “차라리 총으로 죽었다면 고통이라도 덜했을 것” 이라고 치를 떨었다.

이길백씨(68세)는 경찰과 청년단의 만행과 관련 “차라리 인공 치하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는데 수복 후 군경이 들어오면서 무법천지로 변했다” 며 “그때는 즉결처분이 횡행하는 무정부 시대로 술한 죽을 고비를 넘겼다” 고 증언했다.

이어 3일에는 토벌대장 최기명씨가 직접 경찰들을 이끌고 산이면에 들이닥쳐 48명을 처형하는 피의 학살극을 이어갔다. 산이면에 들어선 경찰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밖으로 나온 민간인 11명을 즉석에서 사살했다. 입산 당사자와 부역

자들이 모두 산으로 대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족들에게 보복성 학살을 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개인감정을 앞세워 마을 사람들을 손가락질로 고지질 해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허길씨(76세·여)는 “토벌대가 지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익활동을 이유로 25명의 민간인을 주산동 황토밭으로 끌고 가 억울하게 죽였다” 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보복 학살극” 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오씨(72세)도 “경찰이 면사무소에 근무했던 작은 아버지 흥만씨(당시 25세)가 인공치하에서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밤에 불려내 총으로 쏘 죽였다” 고 증언했다. 이밖에 독립유공자 오상록씨의 아들인 당시 면장 오○○씨와 그 딸도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동네 뒷산에서 학살 됐으며 길을 걸다가 혹은 들에서 일하다 경찰발포로 2명이 사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학살사례도 보고 됐다.

한편 이번 증언은 이제껏 해남지역에서 조사됐던 학살사례와는 사뭇 다른 증언이어서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그 동안 해남지역에서는 1946년 11월 발생한 추수봉기사건과 1950년 7월20일을 전후해서 발생한 해남보도연맹원 학살사건 그리고 1950년 7월24일 해남에 입성한 나주경찰부대가 26일부터 28일까지 저지른 학살사건만 보고됐었다.

시민의 소리 정영대기자 (sunlight87@siminsori.com)

[증언 - 포항]

여남 송골 계곡 미함대 함포사격 학살

증언자 : 안 인 석
(여남송골미함대함포사격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총무)

1. 상황

가. 1950년 9월 1일(음력 7월 19일) 14:00-15:00경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속칭 송골계곡 바닷가 모래사장을 끼고 해안선 2km에서 여남동 환호동 학산동 및 포항시 북구권 주민 대다수 약 1000여명이 피난을 하고 있던 중 9월 1일 14:00경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 피난민들이 비를 피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 이때 정찰기가 저공비행으로 피난민들 상으로 지나간 후 영일만 앞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합중국 해군소속 군함 3척에서 갑자기 함포사격이 피난민들을 향하여 발포하기 시작하여 30-40분간 수 백발의 포탄이 작열하였음.

다. 이 때 1000여명의 남녀노소 피난민들이 도망을 치려고 하여도 5m가량 뒤에는 경사 80도의 가파른 산이 막고 있고 앞에는 바다라서 죽천동과 여남동쪽의 바닷가로 피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순식간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음.

라. 약30-40분간 수 백발의 함포사격이 계속 되던 중 정찰기가 다시 나타나 저공비행 후 상황을 보고 함대로 가더니 함포사격이 멈추었으며 그 후 인명 사상자가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으며 무고한 피난민들의 희생이 약 200명 정도 났음.

마. 그 후 50여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한 가정에 여러 명의 사

상자와 부상을 당한 가족은 순식간에 한 가정이 파멸되어 50여년이 흐른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한탄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음.

○ 참고자료 : 중앙일보(2002/02/01)

포항 여남동 '제2의 노근리' 충격

한국전쟁 중 경북 포항의 한 해변에 모여 있던 피란민들이 미국 해군의 무차별 함포 사격으로 집단 학살된 사실이 '노근리 사건'에 이어 50년 만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1999년 미 언론에 의해 충북 영동의 노근리 사건이 알려진 뒤 피해자 유가족들이 최근 국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해 밝혀졌다. 영국 BBC 방송은 지난해 5월부터 포항 현지 취재에 나서 학살 정황을 확인, 다큐멘터리 '모두 죽여라'(Kill Them All)라는 프로그램을 1일(현지시간) 방영할 예정이다.

◇포격 현장=포항 함포사격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31일 "1950년 9월 1일 오후 2시쯤 포항시 여남동(현 환어동) 속칭 송골계곡 앞 바다에 미 군함 세척이 나타나 30~40분간 육지 쪽으로 집중 포격을 가해 1백명 이상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절벽으로 된 바닷가 산 아래 백사장에서 1km쯤 떨어진 바다에 있던 군함들이 갑자기 피란민들이 모여 있던 백사장을 향해 포격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너비 10m, 길이 1km 정도의 백사장에는 포항 주민 등 1천여명이 피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책위 최일출(崔日出, 69, 환어동)회장은 "점심을 먹고 쉬고 있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비를 피하려고 우왕좌왕하자 정찰기 한대가 머리 위를 저공비행한 뒤 곧바로 포격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崔씨는 포탄이 터지자 죽천리 쪽으로 도망가 목숨을 건졌으나 형(당시 32세)과 형수(당시 28세)가 그 자리서 숨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포격이 멈춘 뒤 백사장과 앞바다가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 시체더미에서 가족들의 시신을 찾았다"며 "적어도 1백명 이상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안인석(安仁錫.58.환어동) 총무도 "어머니가 동생 젓을 먹고 있는 사이 포탄이 날아왔다"며 "동생은 그 자리서 숨졌고 동생을 안고 있던 어머니는 왼쪽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평생 팔을 쓰지 못했다"고 전했다.

송골계곡은 높이 10m 정도의 절벽 아래 백사장으로 앞은 바다여서 포항시 내에 진주한 북한군이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주민들이 피란처로 삼은 곳이다.

◇포격 이유=유족들은 "미 해군이 양민임을 알고도 무차별 포격을 했다"며 "일주일째 별일없이 피란 생활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정조준 포격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족들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모여있던 사람들이 술렁이자 인민군이 쳐들어온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인민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해 포항 도심을 점령했고 국군은 밀리고 밀리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동해상에 배치된 미 해군은 함포사격을 포항 일대에 퍼부으며 포항 도심 탈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대책위 활동 및 정부 입장=노근리 사건 공개 이후인 99년 11월 구성된 대책위는 지금까지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결과 사망자 38명, 부상자 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고 대책위 활동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직까지 정확한 희생자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대책위는 국회 청원에 이어 정부에 진상규명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한 자료가 없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현장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 한미군축도 "조사권한은 미 국무부에 있으며 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노근리 사건처럼 한.미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송의호.홍권삼 기자)

【증언 - 제주】

제주 북촌리 학살

증언자 : 부 청 하
(재경유족회 회장)

○ 참고자료 : 디지털말(2002/07, 제193호)

<말>민간인학살 실험장, 제주 북촌리
민간인에 대한 시험사살 자행된 제주 4·3
국군의 학살 훈련장이 된 제주 북촌리

김동현 (제민일보)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마을은 제주의 전형적인 해안마을이다. 바다를 끼고 들어선 집들은 서로 어깨를 마주하며 그들만의 고즈넉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 파란색으로 빛나는 파도와 거기에 점점이 박힌 제주 특유의 검은 빛깔의 현무암이 빛어내는 색의 조화는 나그네의 발길을 단박에 사로잡는다. 거기선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도 날갯짓을 잠시 멈추며 한없는 느낌의 시공간 속을 유영한다.

아름다운 마을에 숨겨진 핏빛 사연

북촌마을을 찾는 이들은 두 번 놀란다. 마을 들머리에 들어서면 순간, 한없이 펼쳐진 바다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에 놀라고 그 풍경 속에 숨겨진 핏빛의 사연에 경악한다.

북촌마을의 핏빛 사연은 5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9년 1월 17일 오전 11시, 갑자기 들이닥친 무장군인들은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을 북촌초등학교로 집결시켰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약 1천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초

등학교에 집결시킨 군인들은 마을의 초가집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마을 가득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순식간에 4백여 채의 가옥이 잿더미로 변했다.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 있던 사람들을 초등학교 인근 옴팡밭으로 끌고 가 무차별하게 학살했다. 이날 3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희생됐다.

제주 4·3의 대표적 양민학살 사례로 꼽히는 북촌리 사건은 이렇게 진행됐다. 소설가 현기영의 『순이 삼촌』으로 비로소 그 역사적 비극을 세상에 알린 북촌마을. 이날의 학살로 북촌마을은 남자가 없는 마을, 무남촌(無男村)으로 불렸다. 자신이 왜 죽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 그 한 맺힌 원한은 지금도 북촌리 마을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다.

북촌리 양민학살사건은 한동안 금기 그 자체였다. 제주도지 1982년판에도 공비들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기술할 정도였다. 1960년대 발생한 일명 ‘아이고 사건’ 이후 한동안 주민들은 그날의 죽음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받았다.(‘아이고 사건’은 1960년대 마을을 돌던 걸궁패가 북촌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마무리 공연을 하던 도중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 당시 숨진 영령들을 위한 추모극을 하면서 마을 주민 모두가 대성통곡을 하게 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불려가 고초를 당해야 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어간 3백여 명의 주민들.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들에게 학살명령을 내린 장본인은 누구인가.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안겨주는 충격적 증언을 지난 5월 31일, 당시 학살의 현장인 북촌초등학교에서 들을 수 있었다. 1949년 제주도경찰국 차량계 소속으로 그해 1월 17일, 북촌리 학살을 주도했던 2연대 3대대, 대대장 차량을 운전했던 김병석씨(73·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는 그날의 광경을 뚜렷이 기억해냈다.

“아마 그때 대대장 차량이 고장 났을 거예요. 군인들이 경찰국 차량을 빌려갈 때, 내가 대대장 임시 운전수로 차출됐죠. 당시 차량계장이었던 양 아무씨가 차량계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나에게 ‘병석아 사흘만 파견 나가라’고 했지. 그날(북촌리 학살이 일어났던 1949년 1월 17일)은 부대가 구좌읍 월정리에 출동했었는데 어디에서부터지 무전을 받은 대대장이 차를 북촌초등학교로 몰라고 명령을 내렸어. 동쪽에서 오는데 마을에 연기가 올라오

는 것을 봤어. 차량을 지금의 농구골대 근처(지금의 북촌초등학교 교사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한 줄에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주민들이 8줄로 늘어서 있었어. 학교 울타리 주위에는 3대대 병력이 주민들을 빙 둘러싸고 있었고... 집은 불타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김씨의 어머니는 4·3 당시 무장대에 의해 희생당했다. 이런 이유로 김씨는 열여덟 살의 어린 나이에 경찰국 차량계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2연대 3대대장 임시 운전원이었던 김씨의 증언은 북촌리 양민학살사건을 진두지휘한 일선 지휘관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접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더해 줬다. 무전을 받고 차량을 북촌초등학교로 몰았다는 사실은 당시 2연대도 북촌초등학교에 주민들이 집결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씨의 증언은 계속됐다.

“그때 대대장 차량은 임시로 앰블런스를 사용하고 있었어. 날씨가 추워서 나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6, 7명의 장교들이 앰블런스 뒤에서 참모회의를 가졌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했어. ‘학교 담 위에 대대병력을 모아놓고 기총사살을 해야 한다’ ‘대대화기인 박격포를 이용해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했지. 그때 한 장교가 ‘군대 들어와서 적을 사살해본 경험이 없는 군인이 태반이다. 분대별로 길 건너 옴팡밭으로 끌고 가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 모두 좋다고 했지. 동쪽 줄부터 끌고 가기 시작했어. 그때는 나도 혼이 다 나갔던 것 같애. 고향이 함덕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인척관계도 있을 거고 동창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 적을 사살해 본 경험이 없는 군인들에게 경험을 쌓아주기 위해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는 김씨의 증언은 의외로 담담했다.

“경험 삼아 사살했다.”

3백여 명이 넘는 주민이 희생당한 북촌리 양민학살 명령은 어처구니없게도 군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내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북촌리 학살의 1차적 발단은 1949년 1월 17일 북제주군 세화리 주둔 2연대 3대대 중대 일부 병력이 북촌마을 어귀에서 게릴라의 습격을 받아 2명의 군인이 사망한 데서 기인한다. 군인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마을 원로들은 군인

들의 시신을 들것에 싣고 함덕 대대본부로 찾아갔다. 흥분한 군인들은 10명의 노인 중 군경 가족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살했다. 그 후 2개 소대 병력의 군인들이 북촌마을로 돌이닥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북촌 초등학교에 모인 주민들의 처리문제를 두고 장교들이 참모회의를 했다는 김병석씨의 증언은 북촌 학살이 흥분한 군인들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장교들 간에 참모회의를 열고, 명확한 지휘체계 속에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시 북촌마을은 1948년 5·10 선거를 거부한 지역이었다는 점, 1947년 8월 13일 마을 안에서 총격을 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등으로 일찌감치 군경 토벌대의 주목 대상이었다.

1948년 6월 16일에는 북촌 포구에 피항한 선박을 조사하던 경찰관 2명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 청년들은 이 사건을 전후해서 대거 입산했고, 북촌리 학살이 일어나던 1949년 1월경에 마을을 지키는 노인들과 어린이, 그리고 부녀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학교 운동장에 모인 1천여 명의 주민들은 군인들의 위협사격으로 두 살짜리 젓먹이를 안은 채 숨진 40대 여인을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여인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지만 품 속의 아이는 숨진 어미의 가슴패기를 파고들며 젖을 빨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어미의 품 속에서 마지막 젖을 빨던 아이의 모습은 당시 제주도민들 삶의 모습 그 자체였다. 초등학교에 모여 있던 주민들 중 살기 위해 대열을 이탈하던 일부 주민들은 군인들이 휘두른 개머리판에 머리가 깨지거나 총살당했다.

‘킬링필드’ 학살의 땅 북촌의 비극의 현장을 목격한 김병석씨는 혼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당시의 참혹한 광경을 표현했다. “경험 삼아 사살했다”는 김병석씨의 증언은 제주 4·3 당시 일어난 양민학살의 명령이 어떻게 내려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빨갱이’를 색출하려는 군인들에 의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 그것은 시험살인이었다. 군인들에게 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살 경험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그렇게 총소리가 들리고 한 석 줄뿔 끌려 갈 무렵, 주민들을 처형하기 전에 군경 가족 나오라고 했던 게 기억나더라고. 그래서 대대장한테 친족 관계도 있다고 이야기했지. 대대장이 얼른 가서 불러오라고 했는데 이름이 생각

나야 말이지. 그때 같은 운전수였던 장 아무가 생각 났어. 장 아무 가족 나와라고 소리쳤지. 한 20명쯤 나왔어. 그런데 내가 가족 얼굴을 기억할 수 있나.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다시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대대장한테 이야기했지. 이 사람들을 살려줄 생각이 없느냐고. 그때 대대장이 한 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 대대장의 첫마디는 “살려주면 이 사람들의 의식(衣食)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했어. 집도, 집에서 키우던 가축들도 다 불태웠으니까 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걸렸던 것 같애.

그래서 내가 인근 함덕리에 가면 이 사람들 친척들도 있으니까 의식은 해결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 그러니까 대대장이 두 번 세 번 다짐을 받으면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 그렇다고 했지. 그때가 아마 녀 줄뿔 끌려 갔을 때였지. 그때서야 대대장이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어.”

학살 명령권자는 누구인가?

광기의 학살은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3백여 명이 넘는 주민들은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렸다. 불행히도 학살명령권자인 3대대장의 이름을 김씨는 기억해내지 못했다. 단 3일만 대대장 임시운전수로 일했기 때문이라고 김씨는 말하지만,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 충격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김병석씨의 증언은 당시 군경토벌대의 지휘체계를 직접 목격한 당사자의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현재까지 제주 4·3에 대한 증언 중 대부분이 피해자의 것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김씨의 증언은 당시 군경토벌대의 대주민 대응방식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빨갱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양민을 시험살인의 대상으로 여긴 것은 4·3 당시 발생한 많은 양민학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군인들은 북촌마을 사람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다. 전투의 효율을 높이는 대상으로 간주했을 뿐이다.

현재 학살명령을 내린 2연대 3대대장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실한 군 자료와 군 당국의 비협조 내지 은폐로 진실에 대한 접근은 여의치 않다.

1949년 2월 4일의 미군 정보보고서는 1월 19·20·24·25일에 일어난 제주 상황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1월 17일의 북촌리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G-2 보고서가 제주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면 미군 정보보고서에 북촌사건이 누락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미군 정보부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의도적인 은폐이고 만약 알지 못했다면 미군 정보력에 허점이 드러난 것일 수 있다.

다만 당시 한국군의 작전권을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이 갖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미국이 당시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은 북촌 양민학살을 비롯, 제주 4·3 당시 발생한 수많은 학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평화롭던 북촌마을에 비극이 찾아왔던 음력 12월 29일. 매년 이날이면 북촌 마을에는 억울한 영혼을 위한 향불이 피어오른다. 한날한시에, 영문도 모르고 숨져간 부모형제를 기리는 제사가 무남촌 북촌마을 집집마다 울려지는 것이다.

6월 임꺽려 전까지의 활동 방향

단체

내역

【투쟁 보고】

내역 @ 아침 연행

079-6584~5

LG 생활 이민

우리는 이미 법 제정을 실현했습니다

보고자 : 이창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 상황실장, 새사회연대 대표)

지난 2월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유족들은 거창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해 통합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며 긴박한 과제임을 거듭 확인하고 올 6월 임꺽려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쟁취하는 것을 객관적이고 실현가능한 가장 적절한 전술적 목표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거창 회합은 통합특별법 제정운동은 과학적인 정세 분석과 명확한 전술, 집중적인 투쟁을 벌이기 위해서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투쟁상황실 중심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를 창설, 장기 농성과 선전 그리고 정치권 로비 등 법제정을 위한 입체적인 집행을 벌일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투쟁본부는 투쟁전략회의와 투쟁상황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 바 있습니다.

투쟁본부(본부장 임광빈 사무처장)는 이창수 정책기획실장과 기존 범국민위원회 사무처 요원 2인과 사회단체협의회 간사단체인 새사회연대 집행위원 1인으로 투쟁상황실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투쟁상황실은 상황팀(팀장 남인우 범국민위 조직협력국장), 선전1팀(팀장 신혜영 범국민위 간사), 선전2팀(팀장 오영경 새사회연대 정책위원)을 구축하여, 언론관계를 포함한 전략과 전술 및 총괄 조정 및

집행을 투쟁상황실장이, 농성대오 유지와 유족조직화, 투쟁기획행사를 상황팀이, 농성속보 및 선전 매체 발행을 선전1팀이, 사이버 선전 및 사회단체 조직화를 선전2팀이 맡는 등 업무 분장을 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벌여 왔습니다.

1. 투쟁 조직 정비 및 여론 확산

- 투쟁상황실(상황실장 이창수) 운영의 안정화와 자원활동가의 부서 배치
- 법학교수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지지성명 조직 및 발표
- 사회각계 1000인 선언 조직 및 발표
- 각 언론 섭외 및 보도 섭외

2.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3차례)

- 국가의 자기 임무를 각자시키고 유족들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구체적인 인권임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킴
-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인권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법적인 판단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3. 농성투쟁

- 소수의 동원 역량과 장기적인 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투쟁 방식으로 농성투쟁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2월 28일 - 3월 31일)
- 국회앞 노숙농성(4월 1일 - 현재)을 벌임

4. 대국회 로비

- 2월부터 4월까지 입법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우리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문제의 확산을 통한 국회 투쟁 전술보다는 실질적인 국회 행사위 의원 중심의 집중적인 로비가 유효 하다고 판단, 활동을 전개함
- 5월부터 본격적인 언론이 보도되고
- 5월 말 원칙적으로 입법에 대한 청신호가 나옴

5. 대정부 로비

- 집행부처인 정부내 갈등요인 제거와 반대 행위자의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로비를 통한 국회내의 소극적 분위기 개선
- 5월 초와 5월말 관련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면담하고 지지와 지원을 약속을 받아냄
- 5월 중순 국무조정실 실무관계자와 면담
- 5월 말 국방부 관련 실무자와 면담
- 6월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계속 추진의 전제하에 실무책임자(금주 목요일 확정) 실무 면담과 청와대 정무수석(금주 금요일 미정)과의 면담 예정

6. 유족/사회단체 조직화

- 지역 현안의 유족과 학살문제에 관심이 덜한 사회단체들을 법제정 중앙 투쟁으로 조직함
- 국가인권위원회 앞 집단 진정 및 시내 순회 피켓팅, 청와대 앞 집회 및 유족 호소문 전달, 관련 법 완전 쟁취 총력투쟁대회를 벌임으로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가 지역과 사건을 넘어 전유족들이 단결하고 투쟁하는 기풍을 마련
- 투쟁 후원금 조직

7. 새로운 학살 발굴 및 발표

- 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 김천형무소 학살 사건을 최초로 확인/발표
- 농성기간 중 새로운 학살 제보가 속속 들어옴

8. 대 언론 관계

- 사건 개별적 접근과 폭로성 접근의 지양과 법제정의 현재성 부각
- 라디오, 방송, 신문 및 인터넷 언론의 자발적인 동참 유도
- 한겨레, 대한매일, YTN, 시민방송, CBS 및 지방언론 다수

[부록 - 통합법 쟁취 투쟁일지]

- 2월 22·23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 유족 및 활동가 수련회
"2003년도 상반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입법을 위한 총력투쟁 결의"
- 2월 27일(농성 1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를 위한 무기한 농성돌입 기자회견
- 2월 28일(농성 2일)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제 2차 집단진정, 서울 도심 인간띠 잇기 1인 시위, 26개 인권단체, 지지성명 발표
- 3월 1일(농성 3일) 투쟁본부,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학살 사진전시 및 속보 배포
- 3월 4일(농성 6일) 민주노동당 논평 "국회는 민간인학살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의원 김원웅(개혁국민정당 대표) 방문
- 3월 5일(농성 7일) 출퇴근 및 점심시간에 시청역 주변에서 선전전 시작, KBS1, 라디오 동서남북 본부장 출현, 전화 인터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지성명 발표, 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충북지역대책위, 지지성명 방표
- 3월 8일(농성 10일) 제1회 경기지역 학살지 순례단, 지지방문
- 3월 11일(농성 13일) 양당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전갑길(민주당), 이병석(한나라당) 의원 실 항의 방문, 26개 대학, 7명의 법학교수, 농성지지 성명 발표
- 3월 13일(농성 15일) 한홍구 교수(사학), 가톨릭대 학생들, 유족과 함께 농성 현장 수업 진행
- 3월 18일(농성 20일) 277개 단체 공동지지 성명 "국회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3월 19일(농성 21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 1천인 선언
- 3월 20일(농성 22일) 국가인권위, 공문으로 퇴거 요구, CBS FM(시사저널 오늘과내일), 상황실장 법 제정,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역설
- 3월 22일(농성 24일) 종묘 반전 집회 "평화 촛불 대행진"참가, 전쟁 반대, 학살 반대 선전전
- 3월 24일(농성 26일) 국가인권위의 퇴거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
- 3월 25일(농성 27일)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제 3차 집단 진정,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청와대 앞 시위
- 3월 28일(농성 30일) 전국유족, 전쟁·파병반대 성명 발표,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지지 방문, 제주 4·3 유족 및 관계자 지지 방문
- 4월 1일(농성 34일) 농성장 국회로 이동, 파병반대 농성단지지 방문
- 4월 3일(농성 36일) "대국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국회 정문, 민주당, 한나라당 앞에서 유족 1인 시위 진행

- 4월 10일(농성 43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문화"분야 방청, 상황실장, 전농 집회 연대발언
- 4월 18일(농성 51일) "한국전 당시 전주형무소 1600명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 5월 2일(농성 65일) 시민과 함께 하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를 위한 해원국
- 5월 6일(농성 69일) 투쟁본부 대표단, 법무부 강금실 장관 면담
- 5월 8일(농성 71일) 김천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3차 현장 조사
- 5월 9일(농성 72일) 김천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지 발굴 및 기자회견
- 5월 12일(농성 75일) 상황실장, YTN '뉴스의 현장' 출연
- 5월 13일(농성 76일) 김천시장에게 공문으로 김천형무소 학살지 보존 신청
- 5월 14일(농성 77일) 인권단체 농성 지지 성명 발표, 통합입법 거둬 촉구
- 5월 23일(농성 86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완전쟁취를 위한 전국유족 사회단체 총력투쟁 대회, 지역 유족회, 해당 지역 국회의원 항의 방문
- 5월 25일(농성 88일) 상황실장, CBS "시사저널 오늘과 내일" 전화인터뷰
- 5월 28일(농성 91일) CBS 라디오 "시사저널-오늘과내일" 수요일기획 코너에서 민간인학살 문제 다뤄 상황실장, 서영선 강화유족회장이 대담자로 참석하고 부경유족회 양기순 공동대표, 고양금정굴유족회 마임순 총무, 여순유족회 김화자 총무 전화 인터뷰 참여
- 5월 29일(농성 92일) 투쟁본부, 행정자치부 김두관 장관 면담
- 6월 2일(농성 96일) 6월 임시회 개원에 맞춰 200개 단체 공동 성명 "민간인학살 문제 당장 해결하라" 발표, 최현삼 중앙고교 교사 및 학생들 현장학습 및 지지방문
- 6월 3일(농성 97일) 송남수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지지방문
- 6월 4일(농성 98일) 일제강제징용특별법보상추진위 박은희 사무국장, 민연수 간사 지지 방문
- 6월 6일(농성 100일) 투쟁본부, 농성100일 성명 "6월 국회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법을 즉각 제정하라" 발표
- 6월 9일(농성 103일) 김원웅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법에 관한 질문, 조영길 국방부장관 "긍정적 검토" 답변
- 6월 11일(농성 105일) 배기운 의원,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전국 민간인학살 검토 지시에 대한 진행 사항 질문, 고건 국무총리 "관계부처 조정중"이라는 답변
- 6월 14일(농성 109일) 여수 시의원 농성장 지지 방문
- 6월 15일(농성 110일) 원음방송 "일요스페셜-박상환의 세상읽기"에 이창수 상황실장 출연, 통합법 제정 거둬 촉구

지역별 학살 자료 모음³⁾

편집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

서울 · 경기

1. 국군, 경찰, 치안대

- 강화 : 1951년 1월에서 2월 사이 강화 구대교 옆 갑곶나루터와 옥림리 옥계갯벌에서 약 300명의 민간인이 강화 향토방위특공대에 의해 학살당함. 이외에도 1·4 후퇴 직후에도 학살이 있었다.

* 출처 : 서영선, 안학섭 유족 증언

- 경기도 고양금정굴 : 195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지역 우익치안대에 의해 학살. 1995년 경기 고양 금정굴에서 유골 발굴, 최소한 153명 이상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1950년 11월 8일자로 이무영 경찰서장 보직해임, 당시 태극단 감찰부장 김경열의 증언, 당시 고양경찰서 보안계장 김상문의 증언, 1995년에 금정굴에서 발굴한 유골은 현재 서울대 법의학 이윤성 교수가 확인함)

* 출처 : 금정굴진상보고서(1차 1994년, 2차 1999년),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고양시 금정굴 사건 진상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및 건의서(1999. 12)"

- 금정굴 외 고양 지역 및 파주 일대, 실태조사로 밝혀진 사례

* 출처 : "제1회 고양파주지역 민간인학살 심포지엄-금정굴학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2003. 3. 26)

3) 이 자료는 2003년 5월말 현재 파악된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역	시기	장소	피학살 자 수	학살 주체	학살 사유	상세
고양 구산리	수복 후	한강변	100여 명	마을 치안대	부역혐의자	여덟 집은 일가 몰살 포함
고양 가좌리, 대화리 (고양군 송포면 구산리)	수복 후	한강변	400 명	송포면 치안대	부역혐의자	가좌리 창고 감금, 일부는 훈방, 일부는 고양경찰서 거쳐 금정굴, 일부는 한강변에서 학살, 한 가족 몰살 포함-태극단원 증언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예날 지명)	수복 후	귀란골	6가족 몰살	마을 치안대	부역혐의자	가옥 전소
벽제면 내유리	수복 후	마을		우익치안대	부역혐의자	2명만 고양금정굴로 나머지는 마을에서 때려죽임
벽제면 내유리	국군이 수복하고 올라가며	마을	한 가족 몰살	국군	부역혐의자	
고양군 원당면 도내리		뒷산	수십 명	치안대	부역혐의자	세 명만 금정굴로 가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학살
파주 교하면 한남리			72명 일가 4가족 몰살 포함	마을 치안대		치안대원 증언 마을 할머니는 100여 명으로 증언
파주면 교하면 분발면 오도리		한강변 오도리 계곡문 발리	이삼 백 명	마을 치안대와 우익 청년단		
강화	옥계 갯벌 외 두 지역이 더 있고 시기로도 수복 직후가 아니라 1.4 후퇴 시기에 학살이 또 있었다 함					

- 금정굴 외 고양, 파주 일대 학살, 제보에 의한 사례 : 고양 파주 지역 교하면 사무소 뒷산에서도 200-300명 학살되었다는 증언 / 파주면 금촌읍 한

우물에서 40-50 명 학살 / 군포에서 400명 학살 / 남양주에서 진전면 40-50 명 학살, 양주군 전체로는 수백명(남양주는 당시에 양주) * 출처 : 관련 제보

- 국민보도연맹 관련 : 평택, 이천, 안성 각각 400-500명 * 출처 : 관련제보

- 인천교도소, 수원교도소 학살 : 50년 7월 1일 경 서울 점령 직후 한강변 도하 직후 * 출처 : 신경득 논문

- 경기도 이천

항 목	내 용
사건일시	9.28 수복 직후
사건장소	여주 강변
희 생 자	아버지 (당시 40세 정도)
관련 희생자	동네 사람들 다수
가 해 자	후퇴하던 국군 아니면 우익 치안대의 보복 학살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p>당시 아버지는 좌익과 전혀 관련이 없었으나 국군이 들어온 후, 체포되어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이포경찰서에서 34일 밤을 날라다 드렸는데 내일은 오지말라고 통보받은 후 소식이 끊어짐.</p> <p>여주 강변에 시신이 즐비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거기서 학살당하신 듯. 산촌 형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초등학교 옆 언덕으로 손이 묶여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 중에 제보인의 아버지도 있었다 함. 또 다른 누군가의 증언에 의하면 강 건너 이웃 쪽에서도 학살이 있어 시신이 즐비했다 함.</p> <p>* 외평리가 당시 부촌이었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야학도 있었고 독립운동도 활발. 그리고 해방 이후 이들은 좌익활동을 하게 되는데 인민군이 진주한 이후 외평리는 모스크바로 불렀다 함. 이웃 마을에서는 보복학살이 많지 않았는데 외평리에서는 많았던 것 같음.</p> <p>* 이령경 씨 말로는 <역사문제연구> 6호에 이용기씨의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배경이 경기도 이천이었고 거기도 이천의 모스크바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함.</p>
증언가능인	어머니 정태순씨(당시 31세, 현 85세, 치매 증상 있음), 사촌 형(끌려가는 현장 목격)
코멘트	2002년 4월 국민일보 보도를 보고 보도연맹 관련 제보로 들어왔으나 작년 4월 1차 현지 조사 결과, 보도연맹 부분은 확인하지 못함. 단순 보복학살일 수 있으면 전혀 좌익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증언되는데 누군가의 음해로 학살당한 듯 함.

2 미군

- 경기 둔포 : 51년 1월 중순 300여명, 51년 1.4후퇴 당시 고향인 경기 김포에서 경기 둔포로 피란을 갔던 김인태(金寅泰·58·살롬호스피스선교회 목사)씨는 미군의 공습으로 피란민 300여명이 숨졌다고 증언했다. 당시 10살이었던 김씨는 아버지, 어머니, 두 동생과 함께 1월 중순께 김포에서 사흘을 걸어 고향 면사무소 옆 넓은 적산가옥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밤에 미군의 공습으로 아버지와 두 동생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관에서 잠을 자다 아우성 소리에 깨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보니 떨어진 귀와 살점 등이 잡혔다」면서 「10여리를 기어 백사포까지 도망쳤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 출처 [국민일보] 1999-12-30 (종합) 기획.연재 05면 07판 3457자
[한국일보] 1999-12-30 (사회) 스케치 29면 42판 1268자

- 경기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 51년 1월12일 경기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에서 미군기의 폭격을 받은 홍원기(洪元基·62전 신문사 임원)씨는 「당시 오산쪽으로 피란을 가던 중 오전 9시께 미군기 F-80의 습격을 받았다」며 「우리를 중공군으로 오인한 것이라 생각해 손을 흔들어 피란민이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폭격으로 홍씨는 부모님, 누나 옥기(당시15세)씨, 외할머니 등 모두 6명을 잃었다. 김용규씨(63)는 비행기가 급강하해 총을 난사할 때마다 매번 20~30명이 죽어 나갔다.

* 출처 [국민일보] 1999-12-30 (종합) 기획.연재 05면 07판 3457자
[한국일보] 1999-12-30 (사회) 스케치 29면 42판 1268자

- 경기도 분당 쪽에 미군 폭격 * 출처 : 제보

- 주요학살지는 최소 수십명 이상 단위는 용인 광주 여주 고양 파주 * 출처 : 전민특위 보고서

충청 복도

1. 국군, 경찰, 치안대

- 청원군 북이면 옥녀봉 보도연맹원 학살(괴산 사리면 보도연맹-우부원씨의 증언) : 사리면내 보도연맹원들은 1950년 7월 6일(음력 5월 21일) 괴산

군 사리면지서에 소집된 뒤 포승줄에 45명씩 묶인채 대기하고 있던 군용트럭에 실려, 괴산군 증평읍 증평양조장에 끌려가 3일간 창고안에 갇혀있다. 7월 9일(음력 5월 24)일 청원군 북이면 북이초등학교 뒤편 옥녀봉골짜기에서 인근 괴산군 칠성면 등지에서 끌려온 보도연맹원들과 함께 학살당했습니다.

현재 유족들은 매년 음력5월23일(학살당한 날짜가 음력5월 24일이므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원들 중 괴산군 사리면 지역만, 사리면 사담리 모래못 32명(2명 생존), 송오리 12명, 방축골 6명, 수성리 불당골 7명, 하도리 6명(1명 생존), 진암리 진지바위 7명, 산정리 산정말 6명, 중리 중말 4명 등 80명(4명 생존)으로 그들의 유족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출처 : 충북지역증언대회(2002. 10. 10)

-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보도연맹원 학살(정순옥씨의 증언) : 당시 가산리에는 정씨 집안이 많이 살고 있어 정씨 집안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많이 가입했으며, 노씨, 홍씨 집안에서도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던 해 7월 6-7일 무렵 새벽에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 보리쌀을 씻고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묶어 청주경찰서로 연행해갔습니다.

청주경찰서에서 3-4일 이상 감금되어 있다 7월 11일(음력 5월 26일) 한밤중에 천막을 씌워 바깥을 볼 수 없게 만든 트럭에 실려 한참을 어디론가 실려 갔으며, 도착해보니 살고 있던 마을과 멀지 않은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남일초등학교 맞은편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거기서 사람들을 끌어내리더니 인근 저수지 옆 야산(현재 남일면 쌍수리 공군부대아파트 저수지 옆)에서 총살을 시켰다고 합니다. 당시를 생생히 알고 있는 어머니의 기억으로 아버지의 제사를 매년 음력 5월 25일(양력 7월 10일) 지내고 있으며, 가산리 마을에는 이날 제사를 지내는 집이 3-4집 있습니다. * 출처 : 충북지역증언대회(2002. 10. 10)

- 보은군 아곡리 보도연맹원 학살(곽태영씨의 증언) : 곽태영씨는 1950년 6.25 한국전쟁시기 초등학교 4학년으로 청주시 문화동 21-9번지에 살고 있었으며, 부친(곽한준)이 보도연맹원 소집명령을 받고 청주경찰서에 출두한 뒤 어디론가 끌려가 학살당했음을 친지 이웃들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한다.

그 후 곽태영씨는 함께 소집되었던 보도연맹원들이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에 끌려가 학살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아마도 거기에서 부친이 학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부친의 시신이나 유골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 출처 : 충북지역증언대회(2002. 10. 10)

- 영동군 영동읍 보도연맹원 학살(장시원씨의 증언) : 한국전쟁이 발발한 그해 7월 중순경, 영동경찰서로 소집된 산막리, 양정리 등 인근지역 보도연맹원들이 영동읍 근교 설계리 야산으로 끌려가 2-3군데로 나뉘어 학살당했으며, 이렇게 학살당한 사람이 3-4백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예전에도 몇 번 소집됐다 다시 왔으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후 수소문 끝에 영동읍 인근 야산에서 모두 경찰에 의해 총살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출처 : 충북지역증언대회(2002. 10. 10)

- 청원군 북이면 북이지서 보도연맹원 총살(강태공씨의 증언) : 본인(강태공)의 형(강봉식)이 1950년 7월 8일(음력 5월 23일), 청원군 북이면 대울리에서 가족과 함께 논 김매기를 하다가 북이지서로 출두하라는 요구를 받고 출두해 지서에서 총살당했습니다.

50년 7월 8일(음력 5월 23일) 그때 함께 출두한 대울리, 송현리, 신대리 등 인근지역 보도연맹원들 수십명이 북이지서에서 총살당했으며, 그 이튿날 어머니와 형수 등 가족이 북이지서로 형님을 찾아갔으나 시신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형님이 차고 있던 헝겊을 보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당시 본인은 형님의 죽음에 놀라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유족들은 당시 북이지서로 끌려가 죽었던 7월 8일 하루전날인 음력 5월 22일을 기일로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 출처 : 충북지역증언대회(2002. 10. 10)

- 충북 옥천군 월전면 : 보도연맹관련자 500여명의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현장 일부(하천변)는 물에 잠겨 있다.

- 충청북도 청원군 * 출처 : 제보

항목	내용
사건일시	1950년 7월 상순
사건장소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담배창고
희생자	아버지 김환철 씨 (당시 49세) 사망, 어머니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관련 희생자	
가해자	경찰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청주고보->고려대 다니가 여운형이 주도하던 건국동맹에 활동하여 검거 해방 후 출소하였고 해방후에도 남로당에서 활동하면서 학생운동을 함. 50년 4월 말 체포되어서 대법원에서 전향을 함. 이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에서 서울특별지회 조직부장으로 노동운동을 함. 부모님이 본인 관계로 고초를 겪으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4후퇴 때 부산 가서 알았다. 부친 김환철(당시 49세)씨 담배창고로 끌려가 50년 7월 상순(음력 5월 25일)에 학살, 어머니도 고문 당하여 가을에 사망.
증언가능인	-
코멘트	2002년 목요캠페인 당시 사무실을 찾아 음. 좌익 가족, 좌익 혐의로 학살

2 미군

- **노근리** : 1950년 7월 26일에서 29일 사이 충북 영동의 노근리에서 미군 제1기갑사단 7기갑연대 제2대대 병력의 공중폭격과 기총사격, 그리고 기관총과 소총사격에 의해 주민 248명이 학살당함.(참전군인, 현지 주민의 증언이 일치) * 출처 : 한미합동조사

- **충북 단양 괴개굴** : 1951년 1월 20일 360여명, 1951년 1·4 후퇴 당시 피난을 가고자 단양 방면으로 나가는 도중 단양군 가곡면 고습 재동치에서 미군이 못가도록 적극 저지함으로써 부득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렸으나 연합군이 계속적으로 폭격하고 민간인 주택을 소실함으로써 각처에서 모여든 피난민과 부락주민들이 은신처로 넓은 자연동굴(곡개굴->괴개굴)을 안전피난지대로 믿고 은거하고 있는바 1951년 1월 19일 경 연합군 정찰기가 그 부락을 정찰하고 간 후 1951년 1월 20일 폭격기 4대가 그 동굴 입구를 집중적으로 폭격 및 기총사격을 하여 그 동굴 안에 있는 부락 주민 약 360명이 거의 열소 및 질식하여 신원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타서 비참하게 죽음.

* 출처 [국민일보] 1999-12-30 (종합) 기획.연재 05면 07판 3457자
[한국일보] 1999-12-30 (사회) 스케치 29면 42판 1268자

충청 남도

1. 국군, 경찰, 치안대

- **공주형무소** : 공주(왕촌) 말머리재, 50년 7월 7일 군, 경, 공주에서 있었던 대량학살은 공주형무소의 사상범들과 보도연맹 관련자들인 것으로 추정하며, 트럭의 수와 매장의 규모로 보아서 7-8백명 가량의 대량학살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공주형무소는 일제시대를 거쳐 6,25당시 충청일대에서 가장 큰 형무소였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여순반란 사건 등 정치범들도 상당수 수감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 4개의 구덩이 길이 30m, 폭 25m 정도이다.

- **대전형무소** : 1950년 7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 동안 대전형무소 수감자 중 1,800여명의 정치범이 대전인근의 산내, 낭월동에서 처형되었다. 처형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상부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이것은 육군 무관부의 에드워드 중령의 보고서에서 확인되었으며, 관련 18장의 처형 관련사진이 함께 확인되었는데(이도영 박사 확인), 목격자(이규희), 당시 도 경찰국 사찰주임이던 변홍명의 증언.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영국의 노동당 기관지 Daily Worker 기사 인용한 바 있음. 산내지역 현장에서 일부 유골이 확인되었다.

- 옥천지역 보도연맹원 학살

시기 : 1950. 7. 14

장소 : 동이면 평산리 들미 마을, 청산면 미군기 폭격사건 국군, 경찰, 미군

- 당진 보도연맹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심의갑(80) *이병학의 처남, 심영택의 6촌 동생
사건일시	1950년 6월 20일 경
사건장소	매죽굴, 인근 들판, 대전형무소
희 생 자	이병학(매형 30세전후), 심영택(6촌형 29세전후)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마중리
관련 희생자	보도연맹원
가 해 자	-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대호지면 (조금리 소재) 지서 → 서산경찰서 → 대전으로 후송 마을에서 보도연맹 가입자들과 함께 지서로 연행되었다 돌아오지 않음. 대호지면 지서에 수감되어있다가 타 지역에서 온 다수의 사람들과 서산 경 찰서로 이송되었는데 이중 일부(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는 매죽굴에서 기관총으로 학살당하고, 같은 시기에 태안경찰서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들 판에서 집단 총살 후 불에 태워졌음. 이후 대전으로 이송되는 것을 같은 마 울에 살았던 사람(국군 패잔병)이 목격함. * 남 정(해당지역 우익 인사)씨가 서북 청년단을 마을로 인도하였음.
증언가능인	차 모씨
코멘트	보도연맹원, 재소자학살

- 부여 부역혐의자 학살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유완렬(부여) - 울산(현 거주지) 형님 유익렬
사건일시	1950년 6월 23일
사건장소	백마강 등
희 생 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511번지
관련 희생자	충남공산협의회
가 해 자	-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조부님 자생적 독립운동 - 충남공산협의회(여운영씨 계열) 사건 3년 옥고 후 사망(1933년도 독립유공자로), 협의회 회원 54명 가운데 부친도 들어가 있다.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학살당했다. 같이 가신 분 집안 분은 백마강 에서 시신을 찾았다. 부친 시신을 찾지 못했다. 도망간 분들은 살았다. * 관련 자료 : 부친 이 쓴 "농정일기" 있음.
증언가능인	유대열 씨는 백마강에서 아버님 시신을 찾음 (유대열 씨는 당시 17 살 정 도, 041-834-1877) 구술 : 할머니로부터 인지
코멘트	2003년 새시연을 통해 들어온 제보 전쟁 직전에 좌익 인사를 처형한 것 이 주목할 점인 듯.

- 천안 부역혐의자 학살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조학선(현재 59세)
사건일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사건장소	충남 천안군 이장면(?) 하장리
희 생 자	아버님, 형제 4명 학살
관련 희생자	-
가 해 자	-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인민치하에서 치안대장을 하였는데 이후 부역 혐의로 학살당함.
증언가능인	형님
코멘트	2003년 제보 부역 혐의 학살

- 아산시 부역혐의자 학살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김장성
사건일시	1951년 1·4 후퇴 이후..
사건장소	충남 아산시 배방면 복수리 면사무소
희 생 자	최임순(어머니 당시 39세), 동생들(김인식, 김무일, 김유겸, 김기성) 충남 아산시 배방면 복수리 4구 거주
관련 희생자	배방면 수백명
가 해 자	-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도민증 발급을 빌미로 면사무소로 주민을 끌고가 학살(어머니와 동생들이 포함.) *아버지는 대한청년단원에 의해 반공분자로 몰려 온양경찰서에 미결수로 수 감 중 돌아가심..
증언가능인	-
코멘트	2001년 제보, 14 후퇴 직후라 인민군 학살인지 위 내용으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아버지가 대한청년단원에 의해 반공분자로" 부분 이상함.

경상북도

1. 국군, 경찰, 치안대

- 경상북도의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15건

①

사건일자 : 한국전쟁 당시
사건현장 : 경주시 내남동 노곡리 개무덤 계곡
가해자측 : 경주경찰서 등
피해자측 : 신고자(경주시 외동읍 석계리 575, 박병익) 부친 포함 보도연맹 가입자 30명
발생사유 : 전쟁 발발로 보도연맹 가입자 예비검속
사건경과 :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 가입자 수십 명을 인근 계곡 등에서 총살

②

사건일자 : 한국전쟁 당시
사건현장 : 경주시 건천읍
가해자측 :
피해자측 :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정재혁 씨 부친
발생사유 :
사건경과 : 경주시내 면서기하던 부친을 차에 실어가 총살

③

사건일자 : 1950년 7월 초순
사건현장 : 경주시 효현동 소정2리
가해자측 : 서북청년단
피해자측 : 마을청년 4명
발생사유 :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
사건경과 : 신고자(경주시 효현동 6번지, 이원우)의 형님이 부산에서 집에 내려왔는데 서북청년단에서 마을 청년 20명과 함께 사상이 의심스럽다며 데려간 이후 그 중 16명은 돌아왔으나 형님을 포함한 4명은 행방불명

④

사건일자 : 한국전쟁 당시
사건현장 : 김천교도소
가해자측 : 교도소 및 군경

피해자측 :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593-1, 윤재수 씨의 형

발생사유 : 남로당으로 오인

사건경과 : 신고자의 형이 김천교도소에 근무하면서 독립운동 했으나 이승만 정권 하에서 남로당으로 몰려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 당시 총살당함

⑤

사건일자 : 6. 25 직후
사건현장 : 안동시 북후면 석탑동 청골 (두무재)
가해자측 : 경찰
피해자측 : 신고자(권금옥) 부친과 이웃주민 7명
발생사유 :
사건경과 : 총살

⑥

사건일자 :
사건현장 : 안동교도소
가해자측 : 교도당국 및 군경
피해자측 : 신고자(구미시 구평동, 박창근) 부친
발생사유 : 안동시 임동면 대곡동에서 면소개령에 따라 부친 등 마을사람들이 임동장터에 기거 중 경찰이 와서 안동교도소로 데려감
사건경과 : 행방불명

⑦

사건일자 : 한국전쟁 와중
사건현장 :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사거리
가해자측 : 국군
피해자측 : 신고자(김경태) 부친 포함 마을사람 20~30명
발생사유 : 피난 갔다가 너무 일찍 돌아왔다는 이유
사건경과 :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사거리에서 마을사람 20~30명을 국군이 총살함

⑧

사건일자 : 1950년 8월 21일 낮 12시쯤
사건현장 : 청송군 안덕면 금곡리
가해자측 : 미군
피해자측 : 안덕면 주민
발생사유 : 안덕면 북동지역에서 인민군이 공격해 온다는 정보가 있으니 성재동으로 피신하라고 해서 300여명의 주민이 피신했는데 미군 폭격기 3~4대

가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을 난사
사건경과 : 사망 10명, 부상 다수

⑨

사건일자 : 1949년 10월 30일
사건현장 : 영양군 석보면 답곡 2리
가해자측 : 국군
피해자측 : 신고자(천무호) 부친과 인근 주민
발생사유 : 당시 동네 반장과 연초경작자 총대로 있던 신고자의 부친이 8살
에 북으로 간 중간삼촌과 사상적으로 연계되었다고 인근 주민과 함께 총살
사건경과 : 총살

⑩

사건일자 : 1950년 음력 8월 16일
사건현장 : 영양군 영양읍 대천 1리
가해자측 : 국군
피해자측 : 마을주민 18명
발생사유 : 대천리 마을에 국군이 들어와 남로당 가입자를 색출하고자 했으
나 가입자가 없자 무지한 주민 한 명에게 너 동무를 대리는 유도심문에 넘
어가 이놈 사람들 이름을 대도록 함
사건경과 : 마을 주민 총 18명이 말 한 마디 못 하고 총살당함

⑪

사건일자 : 1950년 여름
사건현장 : 안동 쪽
가해자측 : 경찰
피해자측 : 신고자(조석준)의 부친
발생사유 : 영양군 일월면 지서에 신고자의 부친이 예비검속으로 잡혀감
사건경과 : 며칠 후 안동 쪽으로 트럭에 실려가 처형된 것으로 추정

⑫

사건일자 : 1950년 7월 중순
사건현장 : 영덕군 영덕읍 화개 2리 외골
가해자측 : 맹호부대 소속 군인들
피해자측 : 영덕군내 보도연맹 소속 주민 160여명
발생사유 : 조사 및 교육명목으로 2일에서 1주일간 교육시킨 후 영덕읍 남석
리 소재 곡물창고에 1~2일간 감금한 후 끌고감
사건경과 : 집단총살

⑬

사건일자 : 1950년 1월 1일
사건현장 :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각별계곡
가해자측 : 당시 빨치산 흔적을 추적하던 국군 1개 중대
피해자측 : 송천리 주민 50여명
발생사유 : 주왕산 부근에서 빨치산 흔적을 추적하던 1개 중대가 산 아래 송
천리 주민을 모은 뒤 50여명을 묶어 원전리로 끌고 감
사건경과 : 15여명 총살

⑭

사건일자 : 1950년 7월 15일
사건현장 : 영덕군 달산면 주옹 1리
가해자측 : 경찰
피해자측 : 신고자(김중찬) 부친
발생사유 :
사건경과 : 7월 5일경 신고자 부친이 경찰에 잡혀간 후 영덕에서 교육을 받
고 7월 15일 매봉산에서 방공호를 파게 하고 그 봉공호 속에 몰아넣고 총살

⑮

사건일자 :
사건현장 : 칠곡군 석적 지서
가해자측 :
피해자측 : 신고자(권택용)의 두 형
발생사유 :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하여 형님 두분이 칠곡석적 지서에 끌려감
사건경과 : 처형

- 경북 문경 석달마을

1949년 12월 24일 경북 문경읍 산북면 석달마을에서 육군 제2사단 25연대 3
대대 7중대 2,3 소대의 병사들이 3소대장 유진규 소위의 지휘하에 주민 86명
을 집단학살한 사실이 미국동군 사령부의 정보보고서(Intelligence Summary),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G2-report), 미군사고문단 로버츠 준장 서한철에서 확
인되었으며, 3사단 사단장 이용준 소장, 2사단 사단장 송호성 준장이 이 사유
로 보직 해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문경유족회】에서 자료발굴 확인)

- 경북 경산 폐코발트 광산 : 1950년, 3000~5000명, "보초를 서거나 훈련받
다보면 하루보통 10차도 더 넘게 사람들을 신고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까지 총소리가 들렸다. 한번 신고 가면 총소리가 약 40분 정도 계속 들렸다. 그것이 약 한달 동안 계속 되었다. 비가 올 때는 사람들을 트럭에 죽 엮어서 앉혀놓고 고개만 들면 개머리판으로 때렸고 비가와도 사람들을 신고 갔다. 코발트광산 큰 굴에서 다 못죽이니까 옛날 굴뚝(코발트 녹이는 데)에서도 사람들을 죽였다. 시체를 묻으러 갔다온 사람들이 다녀와서는 '너무 참혹하게 많이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 출처 : 경산유족회

- 청도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일자 : 1950년 음력 6월 2일

사건현장 : 경북 청도군 이서면 곰티재

가해자측 : 경찰

피해자측 : 지역내 보도연맹원 372명

발생사유 :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을 창설해 그 목적이 '좌경확산을 방지하고 용공자를 국가가 보호 계도하여 선량한 국민이 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하면서도, 보도연맹원을 해방 후 극도의 정치혼란 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남로당에 가입한 사람(활동여부 불구)과 전적으로 경찰의 불성실하고 무분별한 독단(감정적 처분까지)에 의하여 반국가적 이적행위 우범 예상자로 규정/분류하여 이들을 권유, 강압하여 가입시킴. 실제 보도연맹 청도군 이서면 지부의 경우, 전현직 면장, 조합장 교원, 면서기 전경찰 등 지역사회 중견인사들이 총망라되어 있었고, 70~100여명에 이르는 평연맹원 중에도 공산주의자로 복역한 사람은 한, 둘뿐이고 나머지는 빨치산의 총칼에 강제 당한 상태에서 예컨대 봉화불을 지르는 데 따라간 사람, 곡식이나 의류를 탈취 당한 죄, 빨치산의 뼈라를 주워 본 죄, 짐을 잘못 운반한 죄, 한, 두시간 사랑방과 마루를 빨치산의 선동장소로 징발 당한 죄, 공산주의자의 아들, 형제를 둔 죄, 공산주의자를 친구로 둔 죄 등이었을 뿐인데 전쟁이 발발하자 곧바로 보도연맹으로 연행되어 처형된 것임

사건경과 : 당시 청도지역 보도연맹원들은 각 지서로 끌려와 한 달여 동안 교실 등에서 연금상태로 집단생활을 하다가 현재의 청도경찰서 남쪽 50여미터에 있던 국민회당에 집결해 있다가 곰티재로 끌려 가 집단학살됨

* 출처 : 청도유족회 ?

- 경북칠곡 신동계 보도연맹원 학살 : 1950년 7월 경북 칠곡군 신동계 부근에서 3일에 걸쳐 500명 가량의 보도연맹원이 헌병대의 지휘하에서 학살당함. * 출처 : 미 8군 기갑사단 보고, 현지 학살 가담 민병대원 임종현의 증언

현지 주민들의 증언이 일치함

- 경상북도 문경 보도연맹원 학살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고진환(55세) *당시나이: 1세 *희생자와의 관계: 자
사건일시	1950년 음력 7월(인민군이 경북 지역에 진입할 당시)
사건장소	문경 모전동 유곡 골짜기
희 생 자	고승림(당시 나이 30세 정도 농업 문경시 산양면 송죽 2리 25번지 거주)
관련 희생자	-
가 해 자	지역과 외지 파견 경찰
사건경위 및 관련자료	인민군이 경북지역에 진입할 당시 2군데(유곡, 영순 지역)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증언가능인	-
코멘트	2001년 제보, 보도연맹 관련, 경찰에 의한 학살

- 보도연맹 :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등지 학살(영천의 신인식 유족 등)

* 출처 : 제보

- 경북 영안군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김용식 *당시 나이: 2세 *희생자와의 관계 : 부친
사건일시	1950년 혹은 1951년 12월경..
사건장소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비초등학교 뒤에서
희 생 자	김낙구(53세 정도, 농업, 경북 영양군 일월면 용화동 462번지 거주)
관련 희생자	-
가 해 자	-
사건경위 및 관련자료	*사망신고는 사건 이후인 1967년으로 신고되어 있음 *경찰이 함께 와서 수비면, 일월면 사람 37명 정도를 조사 할 것이 있다고 하여 끌고 간 뒤 수소문을 해보니 군인에 의해 총살당하였다고 함
증언가능인	배수복(영일군 흥해에 생존), 김상철(054-683-1005)
코멘트	2001년 제보여서 전화로 내용 확인한 결과, 부역 혐의 학살인 듯 함. 제보인은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듯.

- 대구형무소 : 1960년 당시 국회 진상조사특위에서 1,402명의 대구형무소 수감자 학살을 확인하였고 명단을 밝혔음.

* 출처 : 국회진상조사특위

- 대구형무소 학살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이만선 *피학살자의 자
사건일시	1949년 겨울
사건장소	대구형무소
희 생 자	이재인 (동계면사무소 서기, 강원도 원주시 당계동 634번지(백간동) 거주)
관련 희생자	-
가 해 자	-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원주 경찰서로 불잡혀 가셨다가 대구 형무소로 이감되었는데 면회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미 돌아가심
증언가능인	어머니
코멘트	2001년 제보 시기가 한국전쟁 전임

2 미군

- 경북 포항 미군 폭격 : 1950년 7월 1000명, 장기곶 등대 근처에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수장사태, 미군 전투기나 함포사격에 의한 학살사건으로 1) 구룡포 고다리골, 학다리골 2)연하계 학살사건- 포항북부지역 3)포항 민간인학살 사례의 8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서 수장

* 출처 : 기사 보도, BBC "다 죽여버려" 등

- 구미왜관교 폭파사건

1950년 8월 3일 미군이 왜관교와 덕성교를 폭격하였다. 이로 인해 왜관교에서 수 백명, 덕성교에서 수 십, 수 백명의 피난민이 사망함

* 출처 : 미군전사, 재향군인, 한국인 피란민 목격자 증언 AP, 2000.10.15 보도, BBC "다 죽여버려"

- 경북 고령군 덕성교에서 미군의 포격으로 수십-수백명이 사망

- 경북 구미에서 100여명이 사망

-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성리에서 50여명이 사망하고 90여명이 중상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2리 17명 사망 20명 중상(1951.2.4)
-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150여명이 사망, 실종(1948년 6월 8일)

경상 남도

1. 국군, 경찰, 치안대

- 지리산 외공마을

1951년 2월 하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에서 최소 400명에서 최대 700여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함. 생존자는 단 한사람도 없으며, 유골 발굴결과 인천고, 서울시립대 전신인 경성농업학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음.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발굴

- 경남 산청군 시천·삼장 : 경남 산청군 시천·삼장면 단성 지역에서 1949년 6월 19일에서 1950년 2월 3일에 걸쳐 205명의 민간인이 국군에 의해 학살당함. * 출처 : 산청군의회 조사

- 경남 거창 남상 춘전학살(당시 함양군 안의면) : 1949년 음력 7월, 24명의 마을 청년들이 빨치산에게 부역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학살 * 출처 : 거창유족회 증언

- 경남 거창 위천 5·8사건 : 1948년 5월 8일 공비 습격시 위천지서를 지키지 않고 피신했다는 이유로 위천면장이 거창경찰서에 끌려가 고문당해 사망한 속칭 '5·8사건' * 출처 : 거창유족회 증언

- 거창 보도연맹 : 거창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밝혀진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은 50년 음력 6월 6일과 11(13일)일 2차례에 걸쳐 일어났고 창고(현 국민은행 자리)에 집단감금되어 있다가 1차로 약 25명이 합천 마령재에서, 2차로 약 30여명이 권빈재에서 학살 * 출처 : 거창유족회 증언

- 전갑생 조사 (경남 민해모 연계 기사 / 2003 보도연맹 심포지엄 등등)

1) 거제 : 거제 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49년 4월과 1950년 4월, 그리고 7월 25일 3차례나 이루어졌다. 1, 2차는 한국전쟁 전이라는 점인데, 그것

은 거제지역의 야산대들을 소탕한다는 목적으로 백골·호림·백호·비호부대 등이 들어와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례라고 하겠다. 또한 일부 우익단체인 민보단과 CIC(육군 방첩대, 이후 특무대)·HID(헌병대)·G-2(해군첩보대) 등이 직간접적으로 학살에 개입하였다. 1949년 4월과 1950년 4월, 7월 25일 3차례 죽어간 민간인들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950년 4월 일운면 구조라 주민 13명 집단 총살 △49년 4~5월 10여 차례에 걸쳐 동부면 구천계곡에서 310명 집단총살 △50년 4월 둔덕면 방담에서 10명 집단총살 △50년 4월 장승포 신사에서 20명 총살 △50년 7월 25일 지심도에서 400명 수장 △1949년 4월, 50년 7~8월 하청·연초지역에서 보도연맹원 40여명 집단총살 △49년 7월 연초면 송정리 뒷산에서 20~30명 집단총살 △50년 7월 장목면에서 보도연맹원 15명 집단총살 △50년 7월 칠천도 부근에서 40명 수장되었다. 1949년 4월~1950년 7월 25일까지 민간인 학살자 수는 총 878여 명쯤 된다. 1960년 국회 조사에서는 44명(유족측 200명), 1989년 거제경찰서 조사 400명 등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 통영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 : 통영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거제지역과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은 해안과 인접하고 있는 곳이라 수장되거나 즉결 처형되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중에도 바다에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통영의 학살시기는 1950년 8월 14~15일과 1950년 8월 17일~22일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졌다. 또한 학살의 책임자로 보여지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군대와 군정보기관(CIC·HID·G-2) 그리고 우익민간단체(대한청년단 등)들이다. 특히 헌병대에서 문관으로 있던 이양조(본명 이판석, 수석 문관)씨의 10명 등이다. 다음의 사건 내용은 거제지역과 동일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이 사건에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군과 정보부대, 우익단체 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고성·사천·남해지역의 민간인 학살사건 : 고성군의 보도연맹 지부 결성식은 1949년 12월 14일 대동극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지난 과오를 청산하고 후생을 맹세한 맹원들과 각계 내빈과 군민 다수 참석하였다”고 한다. (《남조선민보》 49. 12. 21) 그 당시 김기호 고성군 경찰서장과 노기용 고성군수 등이 지도위원 등을 맡았다. 이 지역도 고성경찰서 사찰주임을 중심으로 자수 주간과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보도연맹원들을 가입시켰다고 한다. 고성의 학살 시기는 1950년 7월~8월이고 군대와 CIC, G-2, 해상방위대, 경찰

등으로 추정된다. 학살 지역은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원동마을과 하이면 지역으로 150여명이 학살되었다고 한다. (중략)

4) 마산 : 현재 마산 지역은 경남지역중 단일 지역으로 제일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서부경남 지역의 해안과 맞붙어 있어 거제·통영에 이어서 수장된 인원들이 많았다고 한다. 학살 시기는 1950년 7월 15일 보도연맹원들을 시민극장에 집합시켰고 일부 마산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진해 헌병대 마산 파견대와 마산 계엄사령부, CIC, 경찰 등이 7월 25일 이후로 학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5) 함양 : 함양은 지리산과 인접한 지역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했던 곳이다. 또 산청군의 사람들이 함양으로 와서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살 시기는 1951년 2월 초순이며 희생자는 500여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 함안군 : 1950년 7월 하순 함안군 여항면 여항리의 함안광산(일명 昭和鑛山, 1933년 첫 등록하여 1968년까지 채굴했다고 함)에서 보도연맹원 200여명이 학살되었다. 이 함안 광산에서는 타지역의 주민들도 끌고 와서 총살했다고 한다. 현재 광산 안에는 120여 명의 뼈들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

— 부산 보도연맹(출처 : 2003 부경심포지엄/김기진기자 저서 "국민보도연맹")

◇ 부산과 주변지역 피해규모

	학살 또는 암매장지역	시기(년·월)	피학살자수(산출근거)	학살 주체
부 산	부산형무소	1950. 8~9.	최소 1,000여 (증언)	특무대 헌병
	사하구 구평동(동매산)	"	160여 (증언)	"
	영도구 동삼동(미니공원)	"	200~300여 (증언)	"
	중구 부산터널위 야산	"	수 백 (증언)	"
	동래구 회동수원지 등	"	713 (유골발굴)	특무대 경찰
	북구 구포동(김해 생림면)	"	58 (국회조사)	군 경찰
울 산	대원산 등	1950. 7~9.	869(국회조사,증언 등)	특무대 경찰
양 산	사배골짜기 등	"	712 (유골발굴)	"
김 해	주동광산 등	"	최소 300 (증언)	"
진 영	냉정고개 등	1950. 6~8.	251 (유골발굴)	특무대, G2, 경찰

* 부산의 경우 암남공원, 오륙도 등 인근 해상에서 저질러진 수장은 정확

한 피해규모가 파악 안돼 집계에서 제외했으며, 반면 김해 양산 울산 등은 부산에서 끌려간 맹원들이 중복 계산됐을 가능성이 높다.

(1) 부산 : 부산은 각 지역별로 경찰이 맹원들을 연행했고 각 경찰서 유치장과 부산형무소 등에 수감했다. 그러나 당시 부산은 임시수도로 전국에서 피난민이 몰려들면서 큰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정확한 맹원 수와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부산지역 피해규모와 관련, 1960년 5월 27일 당시 민주당 박찬현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에서만 1만 명이 학살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특무대가 1만 명에 이르는 시민을 공산당 혐의로 학살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부산에선 많은 맹원들이 부산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형무소 간수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무소 측은 밀려드는 맹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미결수 사동 하나를 완전히 비우고 강당과 의무실까지 긴급 개조해 수용했다. 군인들은 심야에 맹원을 여러 명씩 손을 묶어 서구 암남동 철청소 앞 바다 등지로 끌고 가 집단 수장했다.

간수 박 모(83)씨는 "대구 근방까지 인민군이 들이닥치자 부산도 곧 넘어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헌병들이 맹원을 닥치는 데로 끌고 갔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헌병들은 미결수 사동 문을 열고는 앞쪽에 서있던 사람부터 무조건 끌어냈으며 남구 광안리, 사하구 구평동(동매산) 등에 미리 땅을 파놓고 총살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부산지역의 구체적 피해규모는 영도구 동삼동 미니공원 200~300명, 사하구 구평동 동매산(2001년 4월 유골발굴) 160명, 동래(1960년 유골발굴) 회동수원지 등 713명, 구포읍 58명, 부산터널 위 수백 명, 그리고 부산형무소 1천 여명 등이다. 물론 바다에 수장된 경우는 여기서 제외됐다.

(2) 주변 지역 : 김해 양산 진영 울산 등에서도 수많은 맹원들이 집단 학살됐다. 한 예로, 양산 석산리의 경우 율리, 곡리, 지당 등 3개 마을에서 전체 가구 수의 3분 1 가량인 46가구가 1950년 음력 7월초 한꺼번에 가족을 잃었다. 맹원들은 사배부락 인근 골짜기 등지로 끌려가 총살됐다.

이 골짜기에서는 1960년 4·19 직후 유족들에 의해 유골발굴이 이뤄졌으며 모두 712구가 수습됐다. 김해에서는 대동면 주동마을 뒤 신어산 자

락에 있는 주동광산과 인근 숲 굴(2000년 7월 유골발굴)에서 수백 명이 총살, 암매장됐다.

군인들이 트럭에 맹원을 싣고 와 총살했으며 그 장면이 현지 주민들에 의해 직접 목격됐다. 주민들은 "트럭 화물칸에 마치 수박을 싣듯 사람들을 엮드리게 한 뒤 그 위에 천막을 덮었으며 군인들이 네 모퉁이에 총을 들고 서 있었다"면서 "군인들은 더위를 이기지 못해 천막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사람이 있으면 총 개머리 판으로 사정없이 내리쳤다"고 증언했다.

주민들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숲 굴 근처에서 밭을 일구기 위해 삽질을 하면 인골이 쏟아져 나왔고 큰비가 오면 개울(주중천)로 허영계 떠내려왔다"고 말했다. 진영에서는 주민 251명(1960년 유골발굴)이 학살됐으며 그중 절반 가량이 맹원들이었다. 진영의 경우 목사가 학살되면서 미국 선교단체와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단(UNKRA)에서 문제를 제기, 전쟁 기간 중 일부 책임자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당시 지서장만이 사형을 당했을 뿐 학살을 지휘한 실제 책임자인 특무대 파견대장 이명규(중위) 등 군 관계자는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

울산의 경우에도 울주군 온양읍 대운산 능선과 응촌면 오복리 오복재 등지에서 수백 명이 총살됐으며 현지 주민중 일부가 현장 경비를 썼기 때문에 생생히 목격됐다. 이곳에서도 1960년 유족들에 의해 한달 여에 걸쳐 유골발굴이 이뤄졌고 당시 유골을 담은 관들이 산 속을 가득 메웠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한다.

- 경상남도 함양 보도연맹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이복섭(72)
사건일시	1950년 5월 21일(음력)
사건장소	경남 함양
희 생 자	이경록 (당시 39세, 경남 함양군 지곡면 대평리 270 번지)
관련 희생자	-
가 해 자	-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보도연맹
증언가능인	-
코멘트	2001년 제보

- 산청 보도연맹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홍상택(36년 1월 9일 생)
사건일시	-
사건장소	산청 오부면 중천리 706번지(왕촌리 가는 길 신원 학살 터에서)
희 생 자	부친 큰 형님 홍인수, 작은 형님 홍주택 등
관련 희생자	집안 할아버지 아버지, 보다 5-6세 더 많은 분 그 할아버지의 며느리, 당시 35-6세
가 해 자	-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부친은 한국전 전에 학살 당한 듯. 거창 신원 거창 신원 옆 동네에서 육군본부에 문의했었다. 큰 형님 홍인수는 좌익 혐의를 쓰고 보도연맹원이 되었다가 학살당함. 좌익으로 몰린 사유는 해방 직후 봉화불 올렸던 것. 경찰서에 15번에 잡히셨다고 들쭉 형인 홍주택 씨는 빨치산 활동을 하였는데 역시 보도연맹원이 되었다가 학살.
증언가능인	-
코멘트	2003년 YTN 보도를 보고 연락. 부친 건은 거창 신원 학살을 자행한 국군 11사단에 의한 학살일 가능성 있음. 두 형은 보도연맹원 학살임.

- 울산 보도연맹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유정근 * 피학살자의 조카(호적상의 자)
사건일시	한국전쟁 중
사건장소	울산
희 생 자	유석중(당시 30세 정도, 울산군 상북면 지내리 고주)
관련 희생자	-
가 해 자	-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숙부님이 좌익활동을 하셨고 이후 울산에서 보도연맹 장을 하신 것 같다. 전란을 피해 부산 당감동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출근하다가 잡혀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울산 상북면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전쟁 중에 숙부님 가족이 모두 사망해 현재 가족이 없고 족보상에 내가 아들로 올라가 있어 제사를 모시고 있다. 혹시라도 북으로 올라가셨나 해서 알아보기도 하지만 가능성을 희박한 것 같고 학살당하신 것 같다. 원 울산에서 장을 한 것 같다.
증언가능인	-
코멘트	2003년 YTN 보도 보고 연락, 보도연맹 관련 학살, 몸을 피한 연맹원의 거주지를 알아내어 학살한 것으로, 사실이라면 당시 예비검속 대상의 범위, 치밀성, 조직성 등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음.

2 미군

- 경남미군학살

진전면 곡안리 미폭격기총소사 사건 50.8.10	80명	미군 폭격기
진전면 진목리 폭격·기총소사 50.8.7	5명	미군 전투지
진북면 이목리 총격사건 50.8.9	유족진정서 13명	미 제 5해병 전투연대
창녕군 창영읍 여초리	신문 60명	
합안군 군북면 장지리	신문 100명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	신문 60명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신문 30명	
창녕군 남지읍 어만리	남지읍지 다수	남지읍지

- 경남 창녕군 창영읍 어초리에서 60여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
- 경남 합안군 군북면 장지리에서 30여명이 사망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에서 30여명이 사망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에서 60여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
- 경남 마산시 진전면 곡안리에서 83명이 사망

전라북도

1. 국군, 경찰, 치안대

- 전북 남원 대강면 강석마을 : 공비토벌대가 1950년 11월 17일 (음력 10월 초 8일) 전라남도 남원군 대강면 강석리 마을 양민 90여 명을 3곳으로 분류해 대검, 일본도, M1 소총 등으로 난자 살해했다. 6·25 전란으로 인해 완전히 공비들의 치하에 들어간 강석마을 수복작전을 편다는 명목으로 1개 대대 병력의 국군토벌대가 들이닥쳐 고향으로 피난 온 공무원 학생과 부녀자 노약자 등을 "통비분자"로 몰아 학살해 버렸다. 양민들은 4개월 간을 공비들의 치하에서 고난에 시달리다 토벌군의 수복작전을 채 기뻐하기도 전에 집단으로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다.

- 전주 형무소 : 1600명 중 1300 여 명 정치범 학살 * 출처 : 말지
- 전라북도 임실 : 여순사건 직후 좌익 관련자를 모아가서 학살
- * 출처 : 박봉자 유족

- 정읍 보도연맹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김영집(64세) *당시나이: 국민학교 4년 *희생자와의 관계: 아들
사건일시	1950년 5월 21일(음력)
사건장소	전라북도 정읍군 소성면 보하리 와석부락
희 생 자	김보현 (당시 45세로 추정) 전라북도 정읍군 소성면 애당리
관련 희생자	이부범
코멘트	2001년 제보

- 옥구군 부역혐의자 학살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고원 (가명)(56세) *당시나이: 3세 *관계 : 부친 전북 옥구군 회현면 원우리 거주
사건일시	1950년 9월 2일 (음력) - 정확하지 않음, 제사일
사건장소	전북 옥구군 회현면 금강리, 원우리
희 생 자	고신권
관련 희생자	고수일, 고재곤, 고복술, 고상곤, 고귀곤, 고신곤, 김철산 두씨 성 을 가진 사람 등 최대 60~70 여 명
가 해 자	*이름: 김 00 *나이: *소속: 민간치안대(이름을 잘 모른다)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6.25 당시 옥구군 회현면에 거주하던 주민이 현지 주민들에 의해 학살된 사건. 애초 피해자는 이른바 '인공치하'에서 우익으로 알려진 젊은 여인 으로 좌익으로 알려진 가해자에게 유방이 도려내진 상태에서 살해되었 다고 알려짐. 이후 북한군이 물러가고 미군이 진군한 뒤 한국인 치안대 에게 치안을 넘겨주자 애초 희생자의 남편이 소속된 우익 치안대가 보 복성 집단학살 자행. 회현면 원우리의 다수 고씨와 금강리의 두씨 성을 가진 사람들을 해변 으로 끌고가 총살했다고 함. 희생자들은 단순부역자이거나 '인공치하'에 서 관공서가 아닌 금융기관에 종사했던 사람. 빈곤층으로 사회주의에 대 해서 잘 모르나 '잘 살게해주겠다'고 한 말에 동조한 사람들임. * 적극적으로 부역한 자들은 수복이후, 지수하여 법 절차를 통해 수감생 활을 하였으나 위 희생자들은 아무런 법 절차 없이 집단 학살당함.
증언가능인	희생자 고복술의 딸 고순자(72세)-현재 임피면 술산 거주
코멘트	2002년 제보 전형적인 내부자 보복학살의 내용. 제보자가 동네 일이라 서 실명을 밝히기를 꺼려함.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 한 동네에 거주하 고 있음.

- 전주 고리개제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송필용 * 피학살자의 여동생
사건일시	한국전쟁 직전
사건장소	전주 소리개제 구덩이에서 총살
희 생 자	오빠(당시 30세)
관련 희생자	-
가 해 자	경찰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한국전쟁 직전에 우익단체에 의해 전주 고리개제 구덩이에서 총살당함.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당한 것이라 말 못하고 있었음. 당시 제보인은 중1 이었음. 오빠에게 딸 둘 있음. 법무사 -> 국가인권위 -> 범국민위
증언가능인	-
코멘트	2003년 농성장을 찾아오셔서 오영경씨가 간단하게 인터뷰한 것임. 여순사건 관련된 시안인지 아니면 한국전 직전에 빨치산 관련 학살인지 좀 더 알아볼 필요 있음.

- 전주시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이용기 *피학살자의 자
사건일시	1950년 9월(음)
사건장소	순창군 동계면
희 생 자	이창희 (동계면사무소 서기, 당시 29세, 전북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601-1)
관련 희생자	-
가 해 자	-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
증언가능인	황시주, 이종엽, 당시 면서기로 직장동료 (동계면에 생존)
코멘트	2001년에 제보 받은 건으로 자세한 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고, 연락이 안 됨, 시기와 지역으로 보아 보복학살인 듯 함.

2 미군

- **익산역 미폭** : 1950년 7월 11일 오후 2시 40분 경 이리시 상공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B29(미군 전폭기) 2대가 출현하여 수회 순회, 이날 폭격으로 인하여 이리역구내에서만 84명이 사망(이리역 근무자 54명 이상이 몰살)하였고, 송학동 가옥 50채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으며, 가옥 폭격시 사망한 사람과 변전소 부근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수백명(300명 이상)이 넘는다.

전라 남도

1. 국군, 경찰, 치안대

- 여순사건

여수 5000, 순천 2200, 보성400, 고흥200, 광양1300, 구례800, 곡성100 등에서 국군과 경찰 반군과 지방좌익에게 10000여명의 학살이 있었음. 시기적으로 1) 반군에 의한 집단학살 시기와 2) 진압군과 계엄 하에서의 집단학살 시기 3) 토벌과정에서의 집단학살 시기 4)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학살

- * 출처: 1.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1집」
2.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 「여순사건 자료 2집」
3.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0,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3집」

- 해남 부역혐의 학살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000 (이름 확인 못함, 피학살자의 손자)
사건일시	한국전쟁 발발 후 51년 정도에 학살
사건장소	전남 해남군 마산면 산막리
희 생 자	할머니, 할아버지
관련 희생자	-
가 해 자	경찰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주위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서 학살. 빨갱이로 오인받아서 학살당한 것 같음. 할아버지가 혼장을 하심. 할아버지는 면사무소 앞에서 마을 주민 20여 명과 할머니는 언뚥이라는 산에서 마을 주민 10여 명과 함께 학살 됨. 아버지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함
증언가능인	아버지(현재 69세)
코멘트	YIN 보고 친척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문의해 온 것임. 부역 혐의 학살 같음.

- 전남 화순군

1950년 11월 17일 전남 화순군 남면 다산마을에서 육군 제11사단 20연대 1중대 육군소위 장현수의 지휘하에 청년 23명을 집단학살. 인근 도암면 도장리 마을 앞에서 20여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함.

1) 전남 화순군 남면 다산마을

1950. 11. 17 18:00(땅거미 질 무렵 화순군 남면 다산마을 마을회관 및 마을앞 논, 당시 장소위 부대, 꿩꼬리 부대로 알려진 국군들이 매일 저녁 인민공화국 소속 동북하씨가 주관하는 회의에 주민들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망자 강래원등을 추궁, 마을에 진주하여 청년 20여명을 집단 사살함.

- 학살부대 : 11사단 20연대(연대장 육군대령 박기병) 1개 중대장 육군소위 장현수(일명 장소위 부대)의 소속 국군에 의해 사살됨. 무차별 사살 후 국군들이 물러간후 유족또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매장되었으며 현재까지 같은 날 제사를 모시고 있음. * 출처 : 화순군 의회 「진상조사 보고서」

외에도

춘양면 17명 1949. 9. 23, 6. 25 동란시

이양면 6명 1949. 3. 19

한천면 1명 6. 25 수복직후

2) 전남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1951. 3. 17. 07:00(이른 아침), 화순군 도암면 도장리 마을앞 논(일명 도포뱀이) 새벽 마을에 진주한 국군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살려면 모두 나오라"하여 영문도 모른채 마을 앞에 모인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하여 20여명이 사망함. * 출처 : 화순군 의회 「진상조사 보고서」

*문헌에 의한 화순 집단 학살 사례(참고)

□ 한국 전쟁사 9권(국방부)에 의하면

국립경찰에 의해 총 179명이 사살됨

'53. 3. 14 22:50 이양면 두봉산, 형제봉 계곡 36명

'53. 3. 15 02:00 이양면 형제봉 계곡 34명

'53. 3. 16 05:00 이양면 매봉 26명

'53. 4. 6 03:00 북면 백아산 일대 46명

'53. 4. 15 17:00 청풍 깃대봉 37명

□ 화순군사(화순군사편찬위원회)에 의하면 1,945명 희생됨

- '50. 9. 末 화순읍 교리 저수지 32명
- '50. 10. 25 한천 오곡마을 뒷산 10여명
- '51. 10월경 춘양면 지역 양민 21명
- '51. 12 5 ~ 10 도암면 지역 281명
- '49. 10월경 북면에서 50여명
- '50. 10 ~ '51. 4 북면에서 1,000여명
- '51. 7. 20경 북면에서 480여명
- '51. 7. 21 동북에서 10여명
- '51. 11월경 남면에서 주민 23명
- '50. 10. 12 동면에서 지서장등 20여명
- '50. 10. 24 동면에서 경찰등 18명

- 전남 함평지역

1950.12.6부터 1951.1.12사이, 월야면 :350, 해보면:128,나산면: 46 총 524명 학살.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은 월야면 정산리 장교와 동촌마을 입구에서 공비의 습격을 받아 국군 3명이 피해를 당했고, 야간에는 공비들이 승전축하잔치"를 하며 인근마을 주민을 강제로 모아놓고 봉화불을 피우고 장과 팽과리를 치며 국군을 조롱하자 이에 격분한 20연대 5중대 군인들이 익일인 1950년 12월 6일 (陰:10.27) 장교와 동촌마을 주민들을 마을앞 논으로 모이게 한 후 양민 70명을 학살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7개부락(지변,내동,동산,순촌,송계,괴정,성주)양민 200여명, 12월 9일 월야초등학교 뒤와 해보 금덕리 두리샘 언덕에서 17명을 사살, 1950년 12월31일(陰:11.23)해보면 대창리 쌍구령과 1951년 1월 12일(陰:50.12.5) 해보면 상곡리 모평마을주민 70여명, 나산면 우치리도 50여명이 학살 당함.

<참조>

- ㉠ 국회 제 35회 임시의 제19차본회의에서 "국회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崔天義員)
- ㉡ 국회 제35회 임시의 제42차 본회의에서 특위 보고사항 만장일치로 의결.
- ㉢ 민의원의장(郭尙勳) 명의로 국무총리(崔政)에게 후속 조치토록 서면 통보
- ㉣ 4293년(1969)5월 20일(금요일)부터 1960년 5월 21일자(토요일) 韓國日報 報道 資料 조치없음 * 출처 '함평양민학살진상조사실태보고서'(p282)책

- 전남 나주 동창교

1951년 1월 20일 전남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동창교 상류 자갈밭에서 함평 학살의 당사자인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빨치산 색출을 명분으로 주민 130여명을 학살함.

- 세지면 동창교

1951년 1월 20일

장 소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동창교 상류 자갈밭의 학살 총 136명 학살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는 함평지역에서부터 이동 1951년 1월 20일 영산포를 경유하여 세지면쪽으로 진군 강연이 있다는 말을 하며 동창, 섬말주민을 동창교 밑으로 불러모음 130여명을 가려내어 이들을 만봉천이 흐르는 다리 위쪽의 300평 가량의 밭으로 끌고 갔다. 군인들은 청장년들을 동창교위 밭에 6열 횡대로 줄을 세워놓고 6명씩 앞으로 나오게 하더니 기관총으로 사격을 가하여 불과 5분만에 96명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노인들을 불러내 시체를 한 곳으로 모은 뒤 확인사살까지 하였다. (정태균씨가 현장옆에 있는 신복여관에서 현장을 목격함) 또 이들은 당시 국민학교 교사 박영만씨 부인 노점숙씨가 업고 있던 아기가 울자 당시 8개월된 아기를 쐈죽였으며 이내 인근 논밭에서 영농준비를 하는 주민 40여명을 모두 총살

* 참조 : 나주시의회 진상조사 특위구성,보고서

-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철야마을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과 경찰특공대가 1951년 2월 26일 수각, 선동, 등내 3개마을의 양민을 모아 그 가운데 38명을 끌고 뒷산 동박굴재에서 집단학살.

- 나주 왕곡면 온수골 : 맨 처음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으로 1950년 7월 20일 금강방어선이 무너지면서 경찰은 소집한 보도연맹원들을 왕곡면 온수골 야산으로 트럭에 실어나르면서 3백여명을 학살하고 7월 23일 나주를 떠나 피난길에 올랐음.

- 나주 다도면 : 소개작전이 있었는데, 이른 아침 산을 넘어온 군경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총을 쏘기 시작하였고, 총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였습니다. 1차 작전이 끝나고 군경은 빨치산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니다가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또 쏘아 죽이고 마을을 불질러버렸습니다. 이날 28명이 사살.

- 나주 문평면 국동리 : 문평면 국동리에서는 1951년 보리베기 할 무렵 금성산을 넘어온 경찰이 동막골에서 부터 끌고 온 양민 42명을 한꺼번에 학살하였는데, 이 사람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들 뿐만 아니라 당시 금성산을 넘어서 문평면 국동리와 노안면 금안리 사람들이 서로 산을 넘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희생됨.

기타 철야마을 희생자 28분, 보도연맹원 학살 희생자 19분, 장성리 빨치산 희생자 21분, 기타 19분 유족회 조사 및 국회 청원 와우리, 장성리, 용곡리 등 지에서도 이루어졌다.

- 전남 진도 갈매기섬

진도 갈매기섬 6.25때 보도연맹원 집단처형 사건. 전남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산 94번지 무인도(갈매기섬) 1950. 7. 하순경, 6.25 당시 부산으로 후퇴하던 해남 경찰 병력. 해남군 민간인 당시 보도연맹원 260여명 예비검속령 : 1950. 7. 24 진도경찰의 경우에도 부산으로 후퇴하기 앞서 7월 中旬에 보도연맹원을 예비 검속해서 진도 西海에 좌익극렬분자 약 10명을 집단 처형한 것으로 봐서 海南경찰에서도 진도 경찰 병력과 같이 부산으로 후퇴하면서 해남 海倉 西南方에 있는 진도의 南방 무인도인 갈매기섬에서 처단.

- 목포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함승태
사건일시	1950년 12월에서 1951년 1월, 2월 정도
사건장소	송정리에서 하차 장성쪽으로 올라오다 인곡이란 동네
희 생 자	고모네 1명, 외가족 34명
관련 희생자	-
가 해 자	국군, 경찰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본인이 국민학교 2학년때 장성이 고향인데 목포로 피난을 갔었다. 당시 형님이 23-4세정도 였는데 경찰이랑 국방군이 젊은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죽여서 형님은 좌익 활동을 안하고 우익이었는데도 산으로 피신해 있었다. 어머니와 피난을가면서 인곡 근처에서 형님을 뵈었다. 후에 그 근처에서 학살을 당했다고 한다. 우리 친척중에서 고모네 1명, 외가족 3-4명이 돌아가심. 외가족은 장성 삼계면(고씨성일가) 현 상무대 들어온데 산에서 돌아가심.
증언가능인	-
코멘트	2003년 제보

- 전남 장성군 국군에 학살 * 출처 : 제보

항 목	내 용
신고인 인적사항	박종환 유족
사건일시	1951년 1월25일(음력 1219일 기일 기준 추산)
사건장소	전남 장성군 황룡면 통안리 및 아곡리 일대(상동, 중동, 하동, 불매동, 아치실 등)
희 생 자	조부(박성근) 어깨 관통상 생환(83년 작고) 조모(울산 김씨) 임신한 상태에서 3살박이 아이와 함께 살해당함
관련 희생자	농민, 부녀자, 어린이 등 지역민 전체
가 해 자	국군 5중대(불확실)
사건경위 및 관련 자료	제종조부(박노덕, 족보상의 함자) 학살 현장에서 죽음을 가장하여 살아옴, 현 생존) 제종조부(박노준)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피해 모면) 기타 조부의 매제 2인도 살해당함. 그 자식들이 생존해 있음. 전체적으로 100명 이상이 살해당한 것으로 보임. 옛날부터 들어온 사건의 전말(우리 가족 중심)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숙부 등 가족 전체가 살던 황룡면 통안리에서 난리를 피해 사촌 동생집이며 한국전쟁 전에 살았던 마을 장성군 동화면 화곡리에 나왔다가 피난 나온 사람들의 인적사항 신고누락으로 할아버지 사촌 동생이 고생을 치르자 미안한 마음으로 살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빨치산과 접전지역이라 마을 모두를 국군들이 불지르고 소개토록 했다합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일부 타다만 집이나 또는 움집을 짓고 자신들의 터전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합니다. 학살은 국군 5중대라고들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마을 사람들을 한데 모아 통안리 서우치 인근에서 총살했습니다.
증언가능인	-
코멘트	2001년 제보

2 미군

- 여수시 남면 : 1950년 8월 3일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아포에서 미군제트기가 주민과 피난민에게 기총소사를 가해 150명 가량의 주민이 희생. 또한 1950년 8월 7일 여수시 남면 두룩어에서 조기잡이 어선 기총 소사로 12명 사망

[참조 자료] ■ 1960년 4·19직후 국회 양민학살조사특위에서 확인한 내용

구분	피해지역	인원수(명)	재산피해	비고
총계	42개 지역	8,715	가옥 : 10,041호, 4,179동 식량 : 4,930석, 가축 : 3,036두 의류 : 38,949점	
경남	거창군	719		
	거제군	44		
	함양군	593	가옥 : 2,755호, 식량 : 4,930석 농우 : 518두, 의류 : 38,949점	
	동래군	33		
	울산읍	677		
	충무시	267		
	구포읍	58		
	마산시	188		
	산청군	506		
소계	9개 지역	3,085	가옥 : 2,755호, 식량 : 4,930석 농우 : 518두, 의류 : 38,949점	
경북	대구시 상원동	240		
	대구시 파동	100		
	대구시 파동 가창댐 부근	100		
	대구형무소	1,402		
	문경군 (산북면 인봉리)	86	가옥 24호	
	대구시 일원	272		
소계	6개소	2,200	가옥 24호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350	가옥 : 1,449호	
	함평군 해보면	128		
		46	가옥 : 5호	
소계	3개소	524	가옥 : 1,454호	

〈국회특위 위원의 양민학살 조사결과 집계〉

구분	피해지역	인원수(명)	재산피해	비고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면	34	가옥 : 18호		
	순창군 인계면	36	가옥 : 321호		
	순창군 동계면	97	가옥 : 757호		
	순창군 풍산면	15			
	순창군 팔덕면	12	가옥 : 16호		
	순창군 금천면	33			
	순창군 직성면	7			
	순창군 유등면	6			
	순창군 구리면	86	가옥 : 1,549호		
	순창군 쌍치면	536	가옥 : 1,413호		
	순창군 복흥면	166	가옥 : 1,287호		
	소계	11개소	1,028	가옥 : 5,361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289		
북제주군 한경면		83			
북제주군 애월면		223			
북제주군 구좌면		54			
북제주군 한림면		107			
남제주군 남원면		236			
남제주군 중문면		3			
남제주군 성산면		15			
남제주군 안덕면		216			
남제주군 서귀읍		26			
남제주군 대청읍		182			
남제주군 표선면		341			
		제주시	103	가옥 : 4,179동, 가호 : 427호, 가축 : 2,518두	
소계	13개소	1,878	가옥 : 4,179동, 가호 : 427호, 가축 : 2,519두		

〈국회특위 위원의 양민학살 조사결과 집계〉

※ 국회 속기록 자료를 재편집함.

■ 국방부 민간인학살 사건 접수 현황

● 미군관련사건(54건, 캐나다 1건 포함 28번)

사건 지역	민 원 제 출		
	접수일	민 원 인	상 황
1. 순천 풍덕동	99.10.28	권 종 삼	50. 7.25 미군기 폭격으로 사망 4명
2. 익산역	99.10.25	대책위 리수현 외 2명 시, 도의회	50. 7.11 미군기 폭격으로 사망 54명, 중경상 300명
3. 의성 제오리	99.10.28	정 길 수	51. 2. 4 미군기 폭격으로 사망 17명, 부상 20명
4. 예천 산성리	99.11.2	대책위 안식모 외 50명 / 군의회	51. 1. 9. 미군기 폭격으로 사망 50명, 중상 90명
5. 간성, 통천	99.10.21	이 원 봉	51. 1. 4 후퇴 당시 미군기 폭격으로 사망12명, 부상 1명
6. 구미 금전동	99.10.27	박창근 외7명	50. 9. 15 미군기 기총사격으로 사망 18명, 중상 1명
7. 영동 묘동리	99.10.26	정점용 외4명	50. 7. 23 미군병사가 3명 사살
8. 영동 지촌리	99.10.22	정 태 룡	50. 7월 미군병사가 미상인원 사살
9. 서산 대산리	99.10.21	김 근 식	6·25 당시, 미군기 폭격으로 미상인원 사망
10. 용인 풍덕천리	99.10.25	홍원기 외2명	51. 1. 2 미군기 폭격으로 미상인원 사망
11. 연기 월하리	99.10.20	손봉현 외5명	50. 7. 5 미군병사가 7명 사살
12. 마산 곡안리	99.10.26	이단순 외59명	50. 8. 11 미군기 기총사격으로 사망 83명
13. 경주 동방동	99.10.20	최성영	50. 12. 24 미군병사가 조부 사살
14. 수원 병점	99.10.25	이국성	52. 5월경 미군기 기총 2명 사격
15. 단양 상2리 (곡계굴)	99.10.25	단양군 의회의원장 박창수 외 7명	51. 1. 20 미군기 폭격과 기총 사격으로 사망 300명
16. 포항 광천리	99.11.1	김영완	50. 9. 23 미군기 폭격으로 사망 32명, 부상 2명
17. 포항 북송리	99.10.30	허맹구	50. 9. 23 미군기 폭격으로 사망 1명, 부상 6명
18. 경주 다산리	99.11.4	김충호	50. 8월 미군기 기총사격으로 가족 5명 사망
19. 화성 안호리	99.11.10	김재준	50. 12. 6 미군기 폭격으로 가족 3명 사망, 가족 16등 전소
20. 서천 창선동	99.11.10	장희경	50. 9월경 미군기 폭격으로 가족 1채 전소
21. 수원 뒷고지	99.11.10	오경신	50. 7월경 미군기 기총사격으로 국군 사망 80~100명

사건지역	민 원 제 출		
	접수일	민원인	상 황
22. 예천 진평리	99.11.10	예천군 의회	51. 1. 19 미군기 폭격으로 사망 26명, 중상 20명
23. 예산 신주리	99.11.17	이 신 영	50. 9. 5 미군기 폭격으로 사망 3명
24. 포항 송골	99.11.17	최일출 외8명	50. 9. 1 미 군함 포격으로 100여명 사망
25. 김제역 부근	99.11.12	문 병 환	50년 6·25전쟁 당시 미군기 폭격으로 미상인원 사 망
26. 예천 기동	99.11.19	강 신 분	50. 7. 1 미군기 폭격으로 가족 3명 사망, 아들 부 상
27. 서천 대산리	99.11.19	김 애 자	50. 8. 20 미군기 폭격으로 부친 및 주민 수십 사망
28. 양주 황방1리	99.11.23	신 현 창	51. 9. 16캐나다 공병대원이 부친을 사살하고 민원인은 부상
29. 진주 정자리	99.11.23	고 춘 자	50. 8. 6 미군기 폭격으로 남편 사망
30. 남양주 일패동	99.11.23	성 문 기	51. 2. 20 미군기 폭격으로 사망 6명, 초가집 전소
31. 김천 봉천리	99.11.26	양 형 식	50. 7. 27 미군기 폭격으로 사망 16명, 부상 5명
32. 남양주 내곡리	99.12.3	현 남 순	51. 2. 10 미군기 폭격으로 사망 5명, 부상 2명
33. 구미 원3리	99.12.2	최 종 배	50. 7. 30 미군기 폭격으로 민원인의 동생 사망
34. 여수 안도리 (이야포)	99.12.9	이춘송, 윤학재	50. 8. 3 미군기 기총사격으로 사망 50명
35. 사천 마곡리	99.12.10	강남덕 외 53명	50. 7. 31 미군기 기총사격으로 사망 100명
36. 창원 이목리	99.12.14	마산시 의회, 김진권	50. 8. 9 미해병 5사단 병력이 10명 사살
37. 포항 여남동	99.12.15	김 진 수	6·25 당시 미 함포사격으로 민원인의 형 사망
38. 용인 죽전리	99.12.17	이 병 훈	51. 1. 15 미군기 공격으로 조모, 동생 등을 포함해 서 사망 17명, 부상 3명
39. 사천 조장리	99.12.20	차 수 태	50. 8. 22 미군기 공격으로 마을주민 사상 150명
40. 평창 하4리	99.12.28	함 영 길	51. 1. 16 미군 탱크 공격으로 부친 및 마을주민 사망 2명, 부상은 다수
41. 단양 노동리	00.1.13	임근택 외 4명	51. 1. 14~15, 미군탱크, 항공기, 지상군 사격으로 주민 사망 74명, 부상 20명
42. 강화 선두리	00.1.14	정 재 임	50. 9. 16 미군기 기총사격으로 가족 3명 사망
43. 황해도 사리원	00.1.15	김 재 준	50. 11~12월경 미군기 폭격으로 큰형 가족 18명 사망

● 국군관련 사건(19건)

사건 지역	민원 제출		
	접수일	민원인	상황
1. 화순 사건	99.11. 2	화순군 의회 의장	49~50년 사이 인민군 소탕작전시 국군이 99명 처형
2. 고양 금정굴	99.12. 10	경기도 의회 의장	6·25 전쟁당시 치안대 및 국군이 집단 1,000여명 처형
3. 문경 석봉리	99.12. 20	유족회	49. 12. 24 국군이 86명 처형하고, 가옥을 24채 전소
4. 고창	00. 3. 17	대책위	51. 1. 5 국군 제11사단 예하병력이 500여명 처형
5. 청송 갈천리	00. 5. 3	김태기, 황수석, 김호철	50. 8. 18 국군이 10명 처형
6. 남해 상주리	00. 5. 23	조월기	50. 6. 25경 이상의 군인이 민원인의 남편을 포함하여 70명 처형
7. 함평	00. 6. 23	유족회	50. 12. 6~51. 1. 14간 국군 11사단 예하병력이 524명을 처형하고, 가옥을 1,454호 전소
8. 함평/영광	00. 8. 30	박덕화의 2	6·25당시 신광면 송사리, 영광군 군남면 등의 마을주민 미상인원 처형
9. 담양 운산리	00. 9. 19 10. 30	고재갑	50. 11. 10, 11사단 예하병력이 주민 58명 처형
10. 경산 코발트 광산	00. 9. 22 10. 22	유운암	50년 국군이 보도연맹원 3,500명 처형
11. 제주 모슬포 예비검속	00.10.2	이도영	50. 8. 20 예비검속자 부친을 포함하여 250명 처형
12. 거창	95.12.18	이강두의원 국회발의	51. 2. 10~11간 제11사단 예하병력이 548명 처형
13. 산청/함양	96.1.5	특별법 공포	51. 2. 7, 산청/함양 접경지역에서 제11사단이 386명 처형
14. 제주 4·3	99.12.10	추미애 의원 국회발의	48. 4. 3 국군이 13,209명 처형
15. 여순 10·19	00.12.2	김경제/김충조의원 입법 청원	48. 10. 19~27간 제14연대가 진압작전시 미상인원 사망
16. 나주	92.2	나주시의회	51. 1. 20 세지면 동창교 등 3곳에서 제11사단이 138명 처형
17. 남원	94.10	전북의회	49. 12~50. 11까지 주천면, 산내면, 대강면에서 11사단 등이 160명 처형
18. 임실	60,94.10	국회, 전북의회	49. 9~51. 3까지 덕치면, 청운면, 일대 3개지역에서 제 11사단 등이 660명 처형
19. 순창	60,94.10	국회, 전북의회	50. 10~52. 6까지 제11사단이 1,028명 처형

■ 신경득 교수 논문 중 정치범 학살(재소자 학살)

전구 별	피학살자 신원	학살 일시	미군의 개입여부	학살 책임자	학살 장소	학살 인원
원주	정치사상범	1950. 6. 30		헌병	원주 형무소 뒷산	180명
인천	정치사상범 예비검속자 민간인	1950. 6. 29부터 3일간	미 군사고문단의 명령	국군 패잔병 경찰 청년 방위단	시청앞, 서해바다, 인천시내 및 인근산간, 월미도, 송도	700~1,000명
수원	정치사상범 예비검속자 민간인	1950. 6. 30~7. 4.	미군 직접 지시	헌병	오산, 수원시내, 산야	1,000여명
오근장	예비검속자	1950. 7. 6	미군비행기 폭격	국군 패잔병	오창지서 앞 양곡창고	400여명
증평	예비검속자	1950. 7. 7	학살에 동참	군경	북이면 옥수리	500여명
청주	정치사상범 예비검속자 민간인	1950. 7. 1~7. 6		경찰 국군	낭성면 도장골,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산골짜기, 남일면 분터골	2,000명
대전	정치사상범 예비검속자 민간인	1950. 6. 27~7. 15	미군 지휘	헌병	대덕군 산내면 골린골	7,000~8,000명
육천	예비검속자	1950. 7. 13		경찰	군소면 월전리	200여명
노근리	민간인	1950. 7. 20~7. 29.	미군 단독 민간인 학살	5기병 연대 2대대	노근리 기차굴	약 400여명
전주	정치사상범 예비검속자 민간인	1950. 6. 27~7. 19	미군 장교 감시 입회	경찰 헌병대 방첩대원	전주형무소 뒷산 공동묘지, 솔개재부근, 황방산 골짜기	4,500~10,000여명
광주	정치사상범 예비검속자 민간인	1950. 7. 7~7. 23	미군 직접 지시	헌병	광산군 극락면 불갱이 고개, 광산군 지사면 장고봉, 석고면 도등고개, 대전면 한뫼재, 학동 3구 밀양 동고개	3,000~5,000여명
진주	정치사상범 예비검속자 민간인	1950. 7. 15~7. 29	미군 직접 학살	미군 CIC 대한 청년당	정촌면, 문산면, 성면, 명석면	2,000명

- 발간일 : 2003년 6월 16일
- 제작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국사회단체협의회(학살규명사단협)
- 편집 : 새사회연대(학살규명사단협 간사단체)
- 민간인학살 관련 문의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02-736-5158)
 - 민간인학살진상규명통합특별법 생취 투쟁본부
(이창수 상황실장 016-462-1232, 남인우 상황팀장 011-306-9648)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국사회단체협의회
(이영일 집행위원장, 여수지역사회연구소 061-561-1530
오영경 집행위원, 새사회연대 02-925-0062)